황산벌

0408 night

기 획 조철현

각 본 최석환 조철현

감 독 이준익

제 작 씨네월드

1.군막 회담장-낮

당이란 로고에서 카메라 트랙 백하면 당황제와 의자왕, 김춘추, 연개소문이 회담을 벌이고 있다.

당황제 (중국말-자막)

현재 동북아의 긴장은 대당제국이 정한 국제질서를

고구려와 백제가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들 모두가 이 황제의 백성일진데, 짐이 부덕한 소치로다.

연개소문

우리가 와 니 백성이야?!

니들 당나라 몇 년 돼서?! 50년도 아니되지 않았슴메?!

우리 고구려는 700년 돼서, 700년, 알간!

당황제(중국말-자막)

연개소문, 그대가 천하의 질서를 어기려 하는가?!

연개소문

질서 누가 정하는 건데??!

당황제(중국말-자막)

그 질서는 하늘이 정했고, 짐은 하늘의 아들 천자다!

연개소문

니 아바이 당태종이가 형제들 쳐죽이고 황제된 것도 하늘이 정한 질서냐?!

김춘추

니 진짜 무식하데이, 황제께선 정권의 철학적 정통성을 말씀하고 안있나?

연개소문

정통성? 그래, 나는 쿠데타 일으켜 정권 잡았다 와?!

김춘추, 니, 반쪽짜리 왕족 주제에, 김유신이랑 짝짜꿍해서 정권 잡지 안아서?!

의자왕, 니 애비도 서자 아니어서?! 여기 정통성 있는 놈이 어딨서?

떼놈들이 인정해주면 그게 정통성인가?

전쟁은 정통성 없는 놈들이 정통성 세울려고 하는기야.

의자왕

맞제, 고것이 정치적 경륜이제!

김춘추

정치적 경륜?! 하루가 멀다하고 쳐들어와 남의 백성 쳐죽이는게 경륜이가?!

니 놈 왕되고 지난 20년간 우리 신라는 하루도 편할 날 없었데이!!

의자왕

아 즉위 초기에 정권장악허고, 국론통일 할라믄 다들 하는거 아녀?

우리 선수들끼리 지난 야그는 허지 말자.

김춘추

지난 얘기라꼬? 백제 니놈들이 642년 대야성에서 내 딸하고 사위 죽인거,

벌써 잊었어?!!

의자왕

느그 신라 넘들은 554년 옥천 땅에서,

우리 고조 할아부지 성왕을 죽여서 엇다 묻었제?!

지난 백년간 느그 조상하고 우리 조상하고 전쟁함서 있었던 일

모조리 씨부려보까?!

김춘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니캉 내캉은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종자데이!

내 손으로 니를 못죽이면, 내 사내새끼가 아니라카이!!

당황제(중국말-자막)

그만! 짐이 이번에 개입한 이유는...

(참다못해) 너희들이 막나가니까, 나도 노골적으로 말하겠다.

강대국이 까라면 까!

의자왕

뭘 까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랑께.

당황제(중국말-자막)

첫째! 조공문제...

조공은 황제가 정한 국제질서에 순응하겠다는 약소국들의 의사표시다.

헌데 너희 백제놈들, 왜 고구려와 짜고 신라의 조공길을 막나?!

의자왕

아따 김춘추 저거시 싸가지 없게 노니께...

당황제(중국말-자막)

둘째! 우리 당나라 기술자들을 돈으로 빼돌려서,

초강력 쇠뇌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속셈이 뭐냐?!

의자왕

그건... 순수민간차원의 과학기술교류라고 보고 받았는디...

당황제 (중국말-자막)

셋째! 고구려는 우리 당나라가 극구 만류한 천리장성을 축조해

주변국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연개소문

이 종간나 새끼?! 내가 성을 쌓던 부수던 니가 무슨 상관이야!

함 해보자 이기야?

김춘추

이놈이?! 감히 황제에게...

연개소문

뭐이 어드레?! 김춘추, 너, 옛날에 내가 뭐라했서.

고구려,백제,신라가 힘을 합쳐 저 당나라 새끼들 박살내자 아니했슴메?!

당황제(중국말-자막)

개소리!! 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고구려와 백제를,

천하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는, '악의 축'으로 선포하는 바이다!!

김춘추

하모, 저것들은 악으 축 정도가 아니라, 악으 덩어리라카이!

연개소문

무스거?!(벌떡 일어나며)

의자왕

저거 저 새끼, 축에도 못끼는게 말하는 것 좀 보랑께.

(길길이 날뛰는 연개소문을 붙잡으며)

연개소문

(앉아있던 의자를 집어 팽개치며 당황제에게)

너 이 새끼, 언제든 처들어오라우야!

니 애비처럼 피박살을 내주가서!!

놔, 의자왕 너도 친한 척하지 말라우야!

김춘추

(의자왕을 손가락으로 지목하며)

니는 내 손에 죽는데이!

의자왕

음마? 시방 선전포고하는거여 뭐여?

2.몽타주(길/사비궁 어전(밖))-낮

숲길과 강변, 성벽을 따라 말달리는 전령들.

기다렸다는 듯 성문이 열리고 그대로 통과한다.

어전 입구까지 달려온 전령들(2명).

다급하게 말에서 내려 그대로 어전으로 달려간다.

3.사비궁 어전-낮

어전까지 뛰어 들어오는 전령.

우당탕탕 문을 박차고 슬라이딩하듯 들어오는 와서는 다급한 나머지 왕 앞에서 취할 수 없는 묘한 자세로 머리를 조아리며,

전령1

어라하! 산동성 래주를 출발한 당나라 배들이,

서해 덕물도 앞바다에 닺을 내려부렀어~라.

테이블 위의 지도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중신들(6명)과 왕자(8명)들이 늘어서 있다.

전령2 들어와 전령1의 말을 끊으며,

전령2

어라하! 당나라 배가 정확허니 1858척이고,

한 척에 대충 70명썩 타고 있슨께

군사의 쪽수가 무려... 무려...(셈이 안 된다)

허벌나게 많어부러~라.

연이어,

전령1

당군의 지휘관은, 고구려 침공에서 대활약을 했던

'소정방'이라~허요.

임자 (좌평)

아따, 당나라넘들 겁나게 작전 좋구만!

배로 건너와서 평양성으로 곧장 쳐올라가불라고 하네 이!

중신1

고구려는 인자 끝장나부렀네!

개소문이가 당나라에 대놓고 게길 때부터 알아봤당께로!

부여태 (제 2왕자)

아니여, 이 지도를 보랑께,

(작대기로 지도를 가리키며)

여그가 고구려 평양성, 여그가 우리 사비성인디,

배를 댄 덕물도가 딱 중간이랑께.

시방 목표가 고구려여? 백제여? 워메 햇갈려분거!

임자

(작대기로 백강 하구 부분을 탁!탁! 치며)

백제를 치려면 여그 기벌포에다 배를 대지,

열쳤다고 덕물도에다 배를 댄당가?!

중신들 자기들끼리 고개들을 끄덕이며 웅성웅성하는 사이,

전령3이 다급한 다른 전령들과 달리 느릿느릿 걸어 들어와 의자왕에게 머리를 조아린다.

전령3

(엄청 느려터진 충청도 사투리로)

어라~~하, 신라군-들 있자-녀-유~.

답답해 미치려는 표정의 중신들과 왕자들.

부여태

오메 오메, 전령은 성질 급한 남쪽 애들로만 쓰라고 혔잖여어!

전령3

그 신~라군-들이 말여유~.

남한강 쪽으루다가 북상을 하고 있-시-유.

전령이 또 들어온다.

전령4

(따발총같이 빠른 말로)

신라군덜이 쭈욱 늘어서서 가는 기럭지를 본께로 대충 5만은 되것어라.

이번 출정에 김유신이가 나섰고, 김춘추, 김법민이도 같이 출정혔다 허요.

임자

(작대기로 지도를 가리키며)

여그가 남한강이여, 이 길로 쭉 올라간다잖어!

당나라와 신라가 수륙 협공으로 고구려 조질라는게 확실하당께.

부여융 (제 3왕자)

5만이면, 신라군사 거의 단디,

잡것들이 시방 우리 백제를 홍어좆으로 보는거여 뭐여?

부여태

(작대기로 지도를 가리키며)

여그로 가는 척 허지만 여그를 칠 수도 있다 이거시여.

부여효 (제 1왕자)

그라제, 우리 아부지도 18년전에

신라 북쪽 당항성을 치는 척하다가, 남쪽 대야성을 쳐부렀당께.

임자

워메, 환장허것네 이.

(자신의 작대기로 부여효의 작대기를 탁 쳐버리며)

여그 탄현으로 해서 여그 황산벌만 지나면 사비성이 코앞인디,

으떤 미친놈이 군사 5만이나 댈고 여그 남한강까정 올라가것는가?

부여태

혹시 모릉께 미리 대비하자는데 뭐가 그렇게 거시기혀?

부여융

중신들이라고 세금만 축내고 있지,

나라 걱정허는 넘은 한 넘도 없당께.

중신1

뭐시여?! 왕의 거시기물 쪼께 튀긴 첩자식까정도

죄다 '내 왕자요'하고 설치면서, 뇌물이나 받아쳐묵고 허니께

나라가 이 모냥 이 꼴인거여. 알기나 알어?

임자

그라제, 백제에서는 지나가는 개새끼도 '나가 왕자요'할 판이랑께.

왕자들

(동시에) 뭐시여?

부여태

성님, 우리가 쪽수도 많은데

(작대기 치켜들며) 저 놈들 확 덮쳐버릴까요 잉!

중신1

조런 대그빡에 피도 안마른 놈들이!

어쩌고 저쩌고 중신과 왕자들 사이에 일촉즉발 패싸움 직전까지...

말없이 바라만 보고 있던 의자왕의 짜증스런 얼굴 C.U.

4.남한강가-저녁(밤)

남한강가에 둘러앉아 있는 신라병사들.

막사(3개)와 모닥불 등이 보인다.

풀숲에서 고개를 내미는 백제첩자1,2, 뒷모습이 실루엣으로 보인다.

백제첩자1

마지막으로 입 한번 풀자 잉...

(입을 쫙쫙 벌려 풀더니 선창한다)

고마하소, 그카지마소, 안된다카이, 안그렇테이...

백제첩자2

그럽니꺼, 그렇드나, 그랬는교, 그러든교...

백제첩자1

어데예!

백제첩자2

언제예!

백제첩자1

이 문디자슥 말하는 것좀 보지예!.

백제첩자2

이 얼라는 몬하는 말이 엄따 아인교.

백제첩자1

됐다 됐다. 고마 가자.

백제첩자1,2, 좌우를 열심히 살피곤, 검은 옷을 벗어버리자, 신라군 복장.

모닥불에 꼬치생선을 굽고있는 신라병사 1, 2, 3.

백제첩자1,2, 서로 눈짓을 하며 다가가, 신라 병사 1, 2, 3 사이에 엉덩이를 밀어 넣어 껴안으며, 너스레를 떤다.

백제첩자1

쉬바, 벌써 남한강 이천이데이, 어데까지 간다카든교?

신라병사1

그거 알라카지 마소. 내 물어봤다가 시껍묵었다 아입니꺼.

신라병사2

왕이랑 대장군이 같이 나선거 보면 예사 전쟁은 아인기라.

백제첩자2

여기까지 온 거 보면 간만에 고구려를 칠라카는가 보지예?

신라병사2

우리야 고구려든 백제든 그기 무슨 상관이고?

언제 갸들이 ‘이리로 가까요?'하고 허락받고 가드나?

백제첩자1

하여간 백제는 아닌거 학실하지예, 안그렇습니꺼?

백제를 칠려면 탄현 넘어 황산벌 지나가면 직통인데

열쳤다고 여기까지 올라오겠능교?

신라병사3

하이고 문디자슥, 지리가 빠삭하네.

백제첩자1

어데예? 얼라들도 다 아는거 아입니꺼?

신라병사1

내는 몰랐데이. 행님은 아셨능교?

신라병사2

내도 몰랐다카이. 신라 사람이 백제길을 우찌 알겠노?

백제첩자1

(사태를 수습하려고 능청스럽게)

거 백제땅 길 좀 알 수도 있는거 아잉교?

신라병사3

누가 뭐라켔노? 갈 일도 없는 길을 빠삭하게 아니까 그런거지.

괜히 흥분하고 난리데이.

백제첩자1

(당황하며)

뭐라카노 지금? 내 흥분한적 엄따!

신라병사3

얼라? 이제 반말하네.

주변에 지나가던 신라병사 서너명이 뭔일인가 싶어 기웃거린다.

백제첩자2

(수습해보려 애쓰며)

마 마, 고마하입시데이.

신라병사2

내가 뭐 어켔는데? 고마하기는,

(첩자2를 가리키며)

형씨는 왜 저새끼 편을 드나? 어?

백제첩자1

(백제첩자2를 잡고)편은 무슨 편?

백제첩자2

(말리는 백제첩자1을 물리치며)

뭐라꼬? 형씨 시방 뭐라켔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전라도 사투리가 되어간다)

내 가만있을라 켔는데, 말이 쪼께 거시기하네잉.

'으이?'하며 동시에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는 신라병사 1,2,3.

뜨악하며 서로를 쳐다보는 백제첩자1,2.

신라병사1,2,3

시방? 쪼께? 거시기?!

백제첩자2

내가 언제? 나 그런 적 없데이,

참말이데이... 어따, 참말이랑께!

약속한 듯 동시에 첩자를 덮치는 병사 1,2,3. '첩자다!' 외치고,

어느새 주변에서 몰려든 병사들에게까지 깔려 몰매를 맞는 첩자.

‘우린 첩자 아니데이. 첩자 아니라카이!’하고 부정해보지만,

쏟아지는 몰매에 본능적으로 ‘워메 씨발, 아니여, 아니랑께'를 연발하고 그럴수록 더 맞는다.

자리를 피하려던 백제첩자1도 잡혀서 같이 맞는다.

5.금돌성 김춘추 캠프(밖)-밤

주룩주룩 비가 내린다.

보초1 자세를 바로잡자, 옆에 줄지어있던 보초들도 차려 자세를 한다.

갑옷에 짚으로 엮은 도롱이를 입은 김유신(뒷모습)과 천존이 도열해 있는 보초들을 지나

김춘추의 사령부로 들어간다.

보초2

(큰소리로) 대장군 드십니더.

6.금돌성 김춘추 캠프(안)-밤

태자 김법민과 김춘추(갑옷차림), 급히 자세를 바로 잡는다.

빗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들어서는 김유신.

김춘추

(애써 반가운 듯)

처남, 드디어 소정방이가 13만 대군을 이끌고, 덕물도에 도착했다카네.

내 태자만 보내 영접할라캤는데, 아무래도...

김유신

와요?

김춘추

소정방이가 짬밥수를 엄청 따진다카네.

신라에서 군바리 짬밥수 하면 김유신이 아이가.

김유신

어데, 매제가 가소!

김춘추

언제, 내는 당나라 황제하고 얘기 다 끝났다 아이가?

소정방이는 처남이 맡아주소.

그카고 절대로 소정방이 비위를 거슬리면 안된데이.

김유신

와?

김춘추

황제가 전쟁 끝나면 대동강 이남은 내게 준다캤다.

소정방이가 딴소리 몬하게 그걸 분명히 해라!

김유신

그기 단교?

김춘추

이번 전쟁으로 우리가 뭘 얼매나 얻느냐는 전적으로

대장군이 하기에 달린기라.

김유신

잘몬하면 내 탓이고 잘하면 다 매제꺼네?

김춘추

근데, 대장군 니, 말투 좀 가려하면 안되나?

우리 신라는 다 좋은데, 우아래 없는 말투는 싹 뜯어고쳐야 한데이.

김유신

그기 우리 신라 전통 아니가?

얼매나 살갑고 좋노... 전하.

김춘추

됐다 고마, 출발하그라.

김유신 획 돌아나간다

김춘추, 김유신 나간쪽을 보고

김춘추

절마 저거...

(법민에게) 이 전쟁은 이미 끝났데이.

전투는 요식행위고, 인자 전후처리 문제만 남은기라.

숨어있던 신라협상대표가 나선다.

김춘추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곤)

전후처리 협상대표로 너를 따로 보내는 이유를, 니 알제?

신라협상대표

예, 전하...

김춘추

내는 이제 김유신이 같은 꼰대들은 안믿는데이.

니같은 젊은 피를 믿는데이.

이번 협상에서!

(의자에서 일어나)

의자왕의 신병처리만은, 반드시 내 손으로 해야 한다!!!

(자기 분에 못 이겨 의자를 발로 차며)

의자왕 그 새끼를 쳐죽여가 내 딸내미 원수를 갚아야 한다카이!!

니는 그것 해내면 출세하는기고,

그것 몬하면 내 손에 죽는데이. 알것나?! 알것제!!

협상대표

(사색이 되어)

예, 전하.

협상대표를 물러가라고 손짓해서 내보내고

김법민

내는 완전히 깍두기네...

김춘추

니는 태자 아이가. 내 담엔 니가 왕이야.

김유신이 글마가 기회포착하는덴 귀신이데이.

니는 그걸 배워야 한데이.

김법민

내는 외삼춘이 무섭다.

김춘추

이번 전쟁에서, 글마가 왜 무서븐지를 배우란 말이다.

니 적은 백제가 아니라 김유신이데이.

김법민

외삼춘이 와 내 적이고?

김춘추

이 애비가 왕될려고 얼매나 고생했노.

니는 김유신이만 꺽으면 되는기야.

김법민

아부지도 몬할걸 내가 하긋나?

김춘추

니 똑바로 몬하면 니 동생 인문이 왕시킨데이, 알긋나?

(얼굴이 퍼래지는 김법민)

7.덕물도 소정방 캠프-낮

말을 달려 소정방 캠프로 가고 있는 김유신 일행.

멀리 해안에 정박해 있는 대규모 선단들의 모습(CG)을 언덕 위에서 바라보고

대규모 선단의 모습에 기가 질린 듯 하다.

무언가 결심한 듯 앞서 말을 모는 김유신.

8.덕물도 소정방 캠프(입구)-낮

말에서 내리는 김유신 일행을 마중 나온 김인문.

김인문

외삼촌...대장군, 잘 지냈는교?

김유신

....

김법민이 김인문을 포옹한 후, 어깨동무를 하고 앞서 걸어간다.

김법민

인문이 니, 대군 끌고 오느라 욕봤데이.

김인문

행님, 말 마소, 아부지 3년, 내가 3년 공들였다 아이가.

소정방이 골때린데이. 대장군한테 성질 좀 죽이라케라.

김법민

(슬쩍 뒤돌아보고)

내 말을 듣나? 아부지 말도 잘 안듣는데...

(어깨동무 풀며)니 당나라 관복 죽이네.

김인문

(뻐기며 김유신이 들으라는 듯)

내는 신라왕자 신분보다 당나라 관직이 우선이데이.

인자 내는 신라편 몬든다, 니 알았제?

9.덕물도 소정방 캠프(안)-낮

나당 연합군 사령관 소정방,부사령관 김인문,당나라 장군들, 김법민,김유신,신라장수들.

실내에 “천하대지도”란 제목의 커다란 동아시아 지도가 걸려있다.

소정방(중국어-자막)

그대가 김유신인가? 그래, 올해 몇이시오?

김인문(통역)

몇 살 묵었노?

김유신

알꺼 읍다 케라.

중국어로 소정방에게 통역하는 김인문.

소정방(중국어-자막)

무슨 띠요?

김인문

무슨 띠고?

김유신

먼저 말하라케라.

김인문의 통역을 들은 소정방,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진다.

소정방(중국어-자막)

(탁자를 탁 치며 위압적이고 살벌한 어조로)

황제께서 명한 연합군내의 관등서열을 발표하겠다.

소정방, 김인문에게 턱으로 신호를 보내자 김인문이 관등과 이름이 서열 순으로 적힌 큰 괘도를 지시봉으로 가리킨다.

김인문

여기 잘 보소 마.

맨 위가 소정방 장군.

그 담이 나!

울 아부지 신라왕 김춘추가 맨 밑에 여기.

김법민

내는?

김법민

성님하고 대장군은 엄따.

아부지 밑으로는 소정방이 맴이다.

소정방

김유신, 이번 전쟁에서 니 서열이 몇등인지 아는가?

김유신 완전히 똥 씹은 표정이다.

김유신

난 떼놈 밑엔 안들어간다.

소정방(중국어-자막)

지금부터 작전명령을 하달하겠다!

김인문

작전명령을 하달한다!

(지시봉으로 지도에 그려진 뱃길을 가리키며)

이 전쟁의 본진인 당군은 뱃길로 쭉 내려가서,

여기! 기벌포 하구에 상륙한다.

그리고 신라군은...

(육지에 표시된 길을 가리키며)

당군의 전쟁수행에 필요한 식량과 보급품을 가지고 요래로 쭉 내려와서

여기! 백제의 사비성 앞에서 당군과 합류하라.

젤로 중요한 것은 날짠데,

(지도에 적힌 '七月十二日'을 탁 치며)

7월 12일까지 오라.

김유신

느그는 뱃길로 유람가드끼 가고,

우린 육로로 백제군들과 싸워가며

13만명이나 되는 느그놈들 처묵을 쌀을 그 날까지 대라꼬?

내가 쌀배달꾼이가?!!

소정방, 김인문이 통역하는 말을 전해 듣고 단호한 어조로 한마디 하자 김인문 고개를 끄덕이더니

'七月十二日'의 '二'자에 거칠게 X를 하고 '一'자로 고치며...

김인문 (통역)

7월 11일까지 오라!

김유신

소정방이 니 지금 장난하나?! 택도 없데이!

김인문

그 말 후회 안하지요?

통역하지 말았으면 하는 눈치로 김인문을 바라보는 신라 장수들.

김유신만 단호한 표정이다. 김인문, 통역하자 소정방 다시 단호한 한마디!

김인문(통역)

7월 10까지 오라!

김유신 '뭬라꼬?! 이 자식이 정말!!'하며 다시 한마디 하려하자 다른 신라 장수들,

날짜가 더 줄까봐 소정방의 눈치를 보며 김유신의 양팔을 잡고 입을 막는 등 난리다.

소정방(중국어-자막)

우린 보급부대 없이 전투병력만 왔다.

이 작전은 신라왕 김춘추가 황제에게 애걸해 정한 것이다.

당장 김춘추에게 전하라. 배를 돌려 돌아가겠노라고!

소정방의 장황한 말이 무슨 내용일까 바짝 긴장하는 김유신과 신라측 장수들.

김인문(통역)

배 돌려 그냥 가까?

다음 통역을 기다리느라 김인문의 얼굴을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는 신라 장수들.

김인문

와 보는데? 통역 다 했대이.

10.사비궁 어전-저녁

뛰쳐 들어오는 전령들의 발.

엎어지고 자빠지고 올라타고 난리다.

전령5

어라하, 남한강의 신라군이, 탄현을 향해 남하하고 있당께요 이.

전령6

어라하, 당나라 대선단이 기벌포를 향해 남진하고 있당께요 이.

전령7

어라하, 금돌성의 김춘추 산하 병력도 탄현 쪽으로 남하하기 시작했당께요 이.

부여융

오메 오메 고구려가 아니고, 백제네 백제여!

부여태

(중신들을 가리키며)

저 인간들 야그 듣다가 이럴 줄 알았당께!

그 대가리로 좌평 좋아하네!

임자

뭐시여? 그때는 얼마 전에 죽은 제갈공명도 나처럼 말했을 것이여.

의자왕

(버럭 화를 내며)

고만들 못혀?! 언제까지 싸우고만 있을겨?

딴청만 피우는 중신들.

부여효

(의자왕에게)

떼넘들 뱃길로 오다보면 배멀미로 헬렐레 할 것이니께,

상륙하는대로 기냥 조져부는게 최고 존 작전 아니것소 이?!

부여융

그라제! 떼넘들 당하는거 보면,

신라놈덜은 그대로 내뺄 것이구마니라.

뒤에 선 왕자들도 제각각 기막힌 작전이라 감탄하며 수근댄다.

임자

(어이가 없다는 투로)

옘병허네! 생각이 짧아도 저렇게 짧을까 이?

시방 떼놈덜은 원체 멀리서 와서 피곤한께,

얼른 끝내불라고 환장하고 있을거 아니여.

중신1

그라제! 독기가 오를대로 오른 놈들과 붙어서 뭔 존 일을 보것는가?

신라 쪽을 먼저 쳐야제, 안그렁가 이?!

중신2

그라제, 두말하믄 잔소리제!

의자왕

(해탈이를 팽개치고 뛰어 내려와 부여태에게서 작대기를 뺏어들고는)

자고로 우리 백제는 탄현허고 기벌포만 막으면 된다혔어.

그란께 우리덜은 사비성을 방어허고,

느그 중신덜은 델고 있는 군사들을 둘로 쪼개서

탄현허고 기벌포를 막어. 알았제?!

노골적으로 딴청을 피우는 중신들.

부여효

잡것들 보소. 시방 뭐하는겨.

중신2

(들리는 혼잣말로)

왕이라고 해주는건 좆도 없슴서,

툭하면 군사를 내라 마라 거시기여.

부여태

아까 작전이 이러니 저러니 씨부린건 뭐시여?

임자

(시침 뚝 떼며)

작전이 그렇단 것이제, 언제 군사를 낸다 혔는감?

안그런가 자네들?

중신 일동

아믄, 그라제, 그라제!

의자왕

에라 이 씨벌넘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 이거제?!

임자

(옆 사람에게)

워메? 왕이 욕을 다 해야? 씨벌이 뭐여 씨벌이...

중신1

조건이 쪼깨 있당께라.

부여태

나라가 망허게 생겼는데 뭔 조건?!

중신1

그 나라가 우덜 나란가? 니들 부여씨 나라제!

임자

3년전 왕이 왕자덜 41명을 죄다 좌평으로 임명해분 뒤로는

우덜 나라는 없어져부렀제.

중신2

고거시 바로 제왕적 1인 독재가 아니고 뭐시것어?

의자왕

인자 막보기다 이거제? 군사를 낼 조건이 뭐여?!

임자

왕자덜 좌평 관직을 박탈해불면 한번 생각혀볼 수 있제.

중신1

집단지도체제로 환원해불면 금상첨화고!

의자왕

옘병허고! 필요없으니께 다 꺼져!

임자

꺼지라믄 꺼져야제

기다렸다는 듯이 우르르 어전을 빠져나가는 중신들(저속 촬영).

의자왕

(왕자들에게)

느그들도 다 나가!

슬금슬금 눈치 보던 왕자들 역시 우르르 나가고, 해탈이도 쪼르르 따라 나간다.

혼자가 된 의자왕.

의자왕

...야, 계백이 불러!!

11.사비궁 어전-밤

어전 복도를 걸어오는 계백의 발. 쿵쿵쿵...

금동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로 신비한 분위기의 어전.

연기를 뚫고 쿵쿵쿵...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는 계백. 육중한 갑옷차림이다.

의자왕 앞에서 무릎이 깨져라 쾅하고 꿇어앉는 계백.

단위로 올라오라고 손짓하는 의자왕.

조촐하게 차려져있는 술상앞에 올라와 또 쾅하고 무릎을 찧는 계백.

말이 필요 없는 의자왕과 계백, 침묵이 흐른다.

의자왕, 뭔가 할 말을 못하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의자왕

...계백아... (한참 뜸을 들이다)

...한 잔 받아라.

의자왕, 술잔을 건네고 술을 따른다.

'예!'하고 꿇어앉아, 술을 받아 고개를 팍! 돌린 후 들이키는 계백.

뭔가 할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고 망설이는 의자왕.

의자왕

계백아......한 잔 더!

의자왕, 다시 술을 따른다. 역시 '예!'하고 고개를 팍! 돌려 술잔을 들이키는 계백.

계속해서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고 계백아... 한 잔 더! 하며 3번을 더 권하는 의자왕.

주는 족족 5잔을 다 마시는 계백.

의자왕

계백아...니가... 거시기 해야것다.

그런 말을 왜 어렵게 하냔 듯이 의자왕을 바라보며,

계백

뭘라고 다섯 잔씩이나...

아침에 중신놈들을 모아주쇼.

일어나 연기를 뚫고, 쿵쿵쿵, 왔던 길을 다시 나가는 계백.

12.사비궁 어전(밖)-밤

궁궐의 기둥 앞에 멈춰서더니 갑자기 기둥에 머리를 쿵쿵쿵 찧는 계백.

놀라서 바라보고 있는 보초병에게 뚜벅뚜벅 다가간 계백,

멍한 보초병의 갑옷과 무기를 바로잡아주고 아무 일 없었던 듯 돌아서 나간다.

이를 바라보고 있다 따라가는 계백의 가신 팔매.

13.계백의 집-밤

계백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검은 액체가 담긴 사발을 앞에 놓고 앉아 있다.

(인써트) 마당에는 팔매가 석상처럼 서 있다.

계백

...내가 한 말 잘들 들었제.

그거 마시고 죽을겨, 내 칼에 죽을겨?

계백, 쉉~ 소리를 내며 시퍼런 칼을 뽑아든다.

14.사비궁 어전-아침

계백, 피로 범벅이 된 채,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들고 서서 씩씩거리고 있다.

여전히 두 패거리로 나뉘어 서있는 중신과 왕자들, 술렁거린다.

계백에게 기가 완전히 눌려 어전의 구석으로 몰려있다.

부여효

(곁눈질하면서 속삭이듯)

워메 워메, 계백이 저거슨 완전 무대뽄디....

중신1

(바짝 쫀 표정으로)

어따, 이거시 뭔 날벼락이랑가 이.

임자

아니, 중대발표는 왕이 해야지..

계백이가 한다는 것이 뭔소리여?

중신1

난, 우덜 요구사항 들어주는 줄 알고 아침밥도 안묵고 왔는디.

계백

(중신들을 칼로 가리키며)

시방 내 칼에 거시기 헐래, 頭당 군사 5백 명씩 내놀래!

15.사비궁 연병장-낮

퇴약볕이 쨍쨍 내리쬐는 대낮,

계백이 앞에 갑옷과 무기로 중무장한 5명의 장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도열해 서있다.

계백 뒤엔 팔매가 서 있다.

계백

너 나랑 몇 년 됐어?

장수1

20년 됐는디요!

계백

너는?

장수2

18년 됐는디요!

계백

넌?

장수3

17년 인디요!

계백

넌?

장수 4

장군, 갑자기 왜...?

계백

넌 빠진다, 실시!

장수4

장군...?

장수4 이유를 달자 계백, 장수4의 배를 발로 차버린다, 대열 뒤로 나가떨어지는 장수 4.

장수5(짝눈이)

(묻지도 않았는데)

14년 8개월허고 3일 되았어라!!

만족스러워하는 계백.

계백

그동안 안죽고 살아 있느라 수고했다!

느그들... 나랑 거시기 해야것다!

쪼까 있다, 이 자리에 다시 모일 땐 갑옷을 아예 꼬매입고 와부러라!

우리는, 거시기하기 전엔 갑옷을 벗을 수 없당께! 알겠능가?!

장수1,2,3,5

(일제히 우렁차게) 야!!

해질 무렵 같은 장소, 디졸브,

장수 4명이 각자 자신의 부대병사 50여명을 모아놓고 훈계하고 있다.

장수1

너 나랑 몇 년 됐어?

백제병사3

10년 됐는디요?

장수2

넌?

백제병사2

7년 됐는디요!

장수3

넌?

어느 백제병사

아따 장군, 고거슨 뭐할려고...?

장수3

넌 빠진다, 실시!

어느 백제병사

워메, 장군...?

장수3, 병사의 배를 발로 차버린다, 대열 뒤로 나가떨어지는 병사.

백제병사1 (거시기)

(역시 묻지도 않았는데)

어제 처음 뵈었구만이라!!

만족해하는 장수2.

장수1

그동안 못죽고 살아있느라 수고혔다.

장수2

느그들 나랑...거시기 해야것다.

장수3

5천결사대의 핵심은 느그들이여,

중신놈들이 모아준 오합지졸들은 있으나 마난께로!

장수5(짝눈이)

곧 황산벌로 출정한다!

글고 갑옷은....

16.황산벌-새벽

광활한 새벽 벌판

저 멀리 신라 진영에서(계백막사에서 본 모습) 아침밥 짓는 연기들이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망루에서 신라진영을 보고 목책을 향해 소리지르는 백제병사 2.

백제병사2

신라 잡것들 아침밥 헌다아!

목책 위에서 북을 치는 백제병사

백제병사1(거시기)

우리도 불 붙여라아!

백제 취사병들이 일제히 수많은 솥단지 밑에 군불을 지핀다.

신라 진영에서 바라본 백제 진영에서 일제히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른다.(CG)

역시 벌판 중간 지점까지 망보러 나갔던 신라병사4,5 뛰어오면서.

신라 병사4

백제 문디새끼들 밥 처묵는데이!

방패 뒤에서 신라병사 징을 친다.

신라병사5

우리도 밥묵자아!

신라진영 여러 곳에서 "밥묵자아!" "문디새끼들 밥처묵는데이!" "먹는게 남는거다!"라는 소리.

온 벌판에 아구아구 밥 먹는 소리, 소리......

L.S.

17.계백 막사-아침

계백, 장수1, 장수2, 장수3, 장수5 등과 작전회의.

가신인 팔매는 여전히 계백 뒤에 석상처럼 서 있다.

계백

아침밥은 잘덜 먹었능가?

장수1,2,3,.5

(일제히 우렁차게)

야!

계백

역시 밥은 전쟁터에서 묵는 밥이 젤 거시기혀.

밥도 묵었고 슬슬 전쟁혀야제?

장수1,2,3,5

(일제히 우렁차게)

야!

계백

자네들 와신상담이라는 말 알제?

계백의 한마디 한마디에 온통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장수들.

계백

그 쓸개 씹던 월왕 구차가 얼마 전에

불과 5천 군사로 오나라 군사 70만명을 작살냈다는 소문, 다들 들었제?

월왕이 누구고 오나라 군사가 뭐시여?

싸잡아 떼놈들 아니어? 떼놈들이 했는데 우리가 왜 못혀?!!

장수3

(의심의 눈초리로)

상대 장수는 김유신이고 신라군 쪽수는 5만이어라...?

군막 밖에서 보초를 서는 초병 한명, 힐끔힐끔 군막 안을 돌아보고

안에서 들려오는 말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태도가 혹시 신라군 첩자...?

계백

(군막 안을 왔다갔다하며)

손자병법에 이르기를,

전쟁에서 지키는 쪽은 군사가 10분지 1만 되아도,

이기는데 아무런 애로사항이 없는 벱이라 혔다.

5만 대 5천, 간단한 산수 아녀? 딱 10대 1이네.

우리는 명색이 결사대여! 결사대가 쪽팔리게 1당 10도 못혀?!

병사들에게 명령해!

죽기 전에 신라군 열놈 죽였는가 나한테 확인받고 죽으라고. 알았제?

장수1,2,3,5

(일제히 우렁차게) 야!

계백

할당량 못 채우고 디진 놈은... 나가... 죽여버릴겨 기냥!

(장수들을 빤히 보자)

장수1,2,3,5

(일제히 우렁차게) 야!!

계백

글고... 나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 거시기헌거... 기억들 하고 있것제?

까먹지덜 말고 병사들에게, 다시 한번 거시기 잘 허라고 단단히들 일러.

장수1,2,3,5

(일제히 우렁차게)

야!!

군막 밖에서 침을 꼴딱 삼키는 신라 첩자.

계백

그러니께 이번 여그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뭐시기 헐때꺼정 갑옷을 거시기한다!!!

바로 이거여. 알것제?!

장수1,2,3,5

(첩자가 놀랄 정도로 우렁차게 일제히) 야!!!

18.김유신 사령부-오전

김유신, 김법민, 김흠순, 김품일, 천존 등 장수들 모여 작전 회의 중.

김법민

대장군, 날도 좋은데 한 방에 밀어버립시데이.

김유신

한방에? (어이없다는 듯이) 아야. 저 쌀가마 보이나?

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오나라 손무선생의 손자병법에 보니까네...

김흠순

행님, 니는 와 읽지도 않은 손자병법을 인용할라카노?

김유신

(김흠순을 째려보고는)

적의 성을 공격할 때는 적보다 10배의 군사력이 있어야카고,

벌판에서 공격할 때는 2배면 된다켔지마는...

김흠순

(말을 탁 끊으며)

손자병법에는 눈씻고 찾아바도 그런 유치한 산수 안나온데이.

행님 니는 손자병법이 아니라 손녀병법을 읽었는갑데이.

김유신

흠, 흠...

김흠순

그라고 솔직히 우리 군사가 5만이라 카지만,

당나귀 좆빼고 대가리 빼면 남는거 뭐 있더노?

보급수송부대 빼고, 이거저거 다 빼불면 2만 쪼매 넘는다 아이가?

김유신

계백이 갸는 누구보다 내가 잘안데이. 갸의 전략은 마 분명...

김흠순

(또 김유신의 탁 말을 끊으며)

멀 아는데? 계백이 그 노마 전략은 무조건 열씨미 싸우는거데이.

무대뽀로 말이다!

맨날 행님 니혼자 작전 들어간다꼬 잔머리 쓰다가 깨진거 아니가?!

김유신

(약간 발끈하며) 니 지금 뭐라카노?

김흠순

니 계백이 한테 한번이라도 이겨본 적 인나?

행님 니 계백이 무서워서 이러는거 아이가?

김품일

소정방이가 오라고 한 날짜가 내일인데... 여기서 꾸물거릴 새가 어딨는교?

김유신

(정색하며) 목책 뒤에 딱 버티고 있는데 겨들어가 싸울끼가?

그카다 몰살되삐면 저 쌀은 우얄낀데?

날짜보다 중요한게 저 쌀이야. 보급품 떨어지면 힘 못 쓰는거야.

마... 하여간,

백제놈들... 좀 찔러서 끌어내야 한데이.

19.백제군 목책앞-낮 (제1전 욕싸움)

공격을 감행하러 온 신라군 병사들 예닐곱명.

신라 진영에서 응원단장의 액션에 따라 붉은 악마식의 함성응원이 시작된다.

방패막 뒤로 창을 들고 명령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긴장된 표정의 신라병사들

신라병사들

워어~어, 워어~엇, 신 라 만 세, 신 라 만만 세!

신라병사3

문디새끼들 밥 많이 처묵었나,

묵었으면 고마 나와서 한판 붙자카이!

백제병사2

아그야, 자신 있으면 어여 이리 와보랑께!

나란히 선 신라병사들 주먹감자 먹이기, 무릎감자, 대가리 감자를 먹인다.

백제병사1(거시기)

음마, 옘병하는 것 좀 보란께.

(신라병사들에게) 에라이 잡것들, 아직도 몸으로 욕하냐?!

나란히 선 신라병사들 주먹감자 먹이기, 무릎감자, 대가리 감자 먹이기가

안 먹히자 강도를 높여 좆감자, 감자 연타, 엉덩이 까고 가랑이 사이로 주먹 내밀기 등

몸으로 할 수 있는 벼라 별 욕은 다해본다.

백제병사1(거시기)

어메어메, 저거시 뭐시여? 저 저, 상려러 새끼들,

으...응뎅이를 까고 감자를 멕이다니!

약간 타격을 받기 시작하던 백제병사 1,2,4,5,6,들, 급기야 엉덩이 까고 가랑이 사이로 주먹내밀기에

백제병사4가 못 견디고 신음소리를 내며 뒤로 자빠진다.

다소 기세가 높아진 신라의 응원. 연이어 신라병사들 열심히 입을 풀더니 강한 욕 발사!

신라병사1,2,3,4,5,6

칵 쌔리 뻴라, 고마 쌔리박아 찡가뿔라,

얼반 직이뿌까? 문디 자슥들, 고마 칵 배리빡에 공가뻴라!

눈시깔에 먹물을 확 뽑아뻴라!

갑작스런 욕 연타에 견디지 못하고 휘청하며 쓰러지는 백제병사1,2,3.

각기 골을 넣은 축구선수들처럼 화려한 세레모니를 하는 신라 욕병사들.

와! 신라진영 응원단 전쟁을 다 이긴 것처럼 좋아한다.

백제장수5(짝눈이)

오메, 징한 것들... (손으로 눈을 가리며 호들갑스럽게)

눈시깔에 먹물을 뿜아불면 어찌되는겨...

어따 안되것다! 쩌-그 남쪽 보성, 벌교쪽 애덜로 준비시켜라 이.

와! 갑자기 백제쪽 함성이 높아진다!

병사들 일제히 보성, 보성! 벌교, 벌교! 남쪽 남쪽, 보성, 벌교!

마치 경기 중 파이팅을 외치듯 둥그렇게 모여

“육시랄, 우라질, 씨부랄, 오살할...” 궁시렁 궁시렁 욕으로 아가릴 푸는 백제병사들.

신라병사1

드디어 올 것이 왔구마...

신라병사2

쫄거 없데이. 내는 이미 각오했다 마!

죽기아니믄 까무라치기로 함 해보는기다!

백제의 남쪽 병사들, 보성 벌교라는 말에 긴장하고 있는 신라 병사들에게 징한 욕 한 방 발사!

백제병사들 쉴 새 없이 입을 놀리는데 너무 심한 욕이라 기계음으로 처리된다.

백제병사1(거시기),2,3,4

엄청 징한 욕!!! 삐-! 삐-! 삐리리-!! 삑-!!!

손으로 귀를 막고 버티다가 코피가 빡! 터지며 밀려나기 시작하는 신라병사들.

백제병사들 완전히 보내려는 듯 점점 더 심한 욕들을 연타로 쏘아댄다.

백제병사1(거시기),2,3,4

삐-! 삐리리-!! 삑-!!! 삐-! 삐리리-!! 삑-!!! 삐-! 삐리리-!! 삑-!!!

온 벌판을 서라운드로 가득 채우는 ‘삐- 삐리리- 삑-’

온 신라 병사들은 얼른 귀를 틀어막지만 고통을 참지 못하고,

백제병사들은 어느새 준비한 단단한 귀마개로 귀를 막고들 서있다.

신라병사들

으~고마해라...

신라병사2

(피를 흘리며 질질 끌려가는 와중에)

기죽을 거 없다 마, 원래 욕은 백제 남쪽놈들 못당한데이.

갸들은 얼라가 어무이 뱃속에서 나올 때도,

‘오메 씨벌'카고 나온다카대.

20.김유신 사령부(낮)

김유신, 김법민, 김흠순, 김품일, 천존이 작전회의 중이다.

김법민

찔러도 안튀어 나오네. 대장군 지금 이카고 있을 시간이 어딨는교?

김유신

수는 적지만서도 길목에 목책을 져불고 있는데,

쌀가마니 이고 겨 들어가 싸우잔 말이가? 좀 기다려 봐라.

이 때 신라첩자 뛰어 들어오며

신라첩자

대장군, 다녀 왔습니더.

김품일

그래 뭐 좀 건졌나?

신라첩자

계백이가 하는 말 싸그리 다 들었심더.

김법민

뭐라캤는데?

신라첩자

(계백의 말을 거의 성대모사 수준으로 똑같이)

“손자병법에 이르기를,

전쟁에선 지키는 쪽 군사가 10분지 1만 되아도

이기는데 아무런 애로사항 없는 벱이라 혔다.”

김품일

계백이 갸도 손자여? 글고 또?

신라첩자

“내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 거시기헌거 기억들 하고 있것제?

까먹지덜 말고 병사들에게 거시기 잘 허라고 단단히들 일러.“

반복되는 '거시기'에 황당해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 신라 장수들.

김법민

작전에 대해 뭐라카는 말은 없드노?

신라첩자

그것도 들었심더.

모두 첩자의 입술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신라첩자

계백이가,

“그러니께 이번 여그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뭐시기 헐때꺼정 갑옷을 거시기한다!!!

바로 이거여. 알것제?!“ 그랬심니더.

너무 황당해 아무 말도 못하는 신라장수들.

김품일

쉬바, 도대체 뭐꼬? (지 머리를 쥐어 뜯으며)

백제놈들 염탐해 올 때마다 그 '거시기'땜에 돌아뿔것데이.

김유신

(많이 당해본 일인 듯 의외로 담담하게)

야, 암호해독관, 니 풀어바라.

첩자의 설명을 받아 적던 암호해독관이 일어나 그 종이를 군막 한켠에 붙이고 브리핑한다.

암호해독관

계백이가 한 말 중에는 총 4번의 ‘거시기'와

한 번의 ‘뭐시기'가 쓰였는데 먼저 젤 앞의 거시기는

대략 두 가지 정도로 그 뜻을 압축해 볼 수 있심더.

‘이야기하다' ’주의주다'가 그것인데,

즉 ‘내가 출정하기 전에 갑옷에 대해 이야기한거’

혹은 ‘갑옷에 대해 주의준거 모두 기억하고 있제?'로 보여집니다.

믿음이 간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해하는 장수들.

암호해독관

문제는 두번째 거시긴데,

‘까먹지덜 말고 병사들에게 거시기허라고 단단히들 일러.

알았제?' 이 말뜻은 모두 잊어먹지 말고 병사들에게, 병사들에게...

이건, 이건 모르겠심더...

김유신

그럼, 그거는 나중에 해독하고, 작전을 풀어보래이. 작전 말이다!

암호해독관

작전지시에서 처음 나온 거시기는 바로

‘작전’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고로 “그러니께 이번 여그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전술적인 거시기는...”

에서의 거시기는 한마디로

‘우리의 작전은...’이란 뜻으로 쉽게 해독되며...

‘올커니, 잘한다!’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장수들

암호해독관

“한마디로! 뭐시기 헐때꺼정 갑옷을 거시기한다!!!

바로 이거여. 알것제?!”에서의 뭐시기와 거시기는...

진땀을 흘리는 해독관, 해독관을 초조하게 바라보는 신라 장수들

암호해독관

이건...이건... 죽어도 모르겠심더.

(울먹이면서)

억울합니더, 암호해독 20년에 이런 고난도 암호는 처음입니더.

김유신

들었제? 계백이 갸는 무서운 애데이.

거시기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때까진, 총공격은 절대 몬한다카이!

그리고 해독관, 내일까지 못풀면 니는 내 손에 디진데이!!

21.황산벌-낮 (제 2전 기마궁술전)

신라진영의 방패막 사이를 달려 나오는 신라기마병1,2.

말에서 탔다 내렸다 하면서 신라 진영 응원단의 함성과 파도타기를 유도한다.

신라병사1,2,3,4,5,6 등등

백제 나와라, 백제 나와라,

안나오면 쳐들어간다 쿵따리 쿵따!

이때 백제 진영에서 뛰쳐나오는 백제 기마병1,2.

더욱 현란한 갖가지 묘기를 부리며 나온다.

백제의 응원도 시작된다.

(시간경과)

각자 자신의 진영에 깃발을 꼽고는 일제히 달려 나가는 신라, 백제의 기마병들.

서로를 향해 활을 날린다.

백제기마병1과 신라기마병1,2가 살아남았다.

신라 쪽의 함성이 커진다.

다시 한번 교전을 펼치는 기마병들.

신라기마병2가 화살에 맞아 죽자 이번엔 백제의 응원단의 함성이 커진다.

백제, 신라 각각 한 명만이 남아 마지막 결전을 치를 태세.

마지막 승부를 위해 내달리는 기마병들.

회심의 연발 식 쇠뇌(석궁처럼 쏘는 화살)를 발사하는 신라기마병1.

백제기마병1의 머리를 향해 정통으로 날아가는 화살.

화살에 맞았는지 말 등에서 사라진 백제기마병1.

승리를 확신하며 환호성을 지르는 신라진영 응원단과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분위기의 백제 진영응원단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

활을 피해 말의 배 아래에 매달려 있던 백제기마병의 몸이 거짓말처럼 말잔등 위로 불쑥 솟아올라

활시위를 당긴다.

슈우우융! ....   명중!

와! 백제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신라군과 백제군의 깃발을 자랑스럽게 뽑아들고는 백제 응원단 앞을 달리는 백제기마병1.

22.기벌포 소정방 캠프-낮

백제비서1이 다급하게 걸어와 막사 안으로 들어간다.

소정방이 앉아있는 단 옆에는 지도가 걸려있고, 김인문이 서 있다.

신라협상대표, 백제협상대표는 아래쪽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

신라협상대표 뒤에는 신라비서1,2가, 백제협상 대표 뒤에는 백제비서2가 서있다.

다급히 뛰어 들어와 백제협상대표에게 귓속말하는 비서2

백제협상대표 (중국어-자막)

(얼굴이 밝아지며)

황산벌에서 막 끝난 제 1전, 2전을,

우리 백제가 모두 이겨부렀당께요!

신라협상대표

(잠시 당황하다가) 첫끗발이 개끗발!

김인문(중국어-자막)

소장군님, 백제 협상대표도 왔으니

전후처리 협상을 시작하시죠.

소정방 (중국어-자막)

협상은 없다. 약속과 명령만 있을 뿐이다.

영토분할에 대한 황제의 명을 전하겠다.

종전 후, 백제의 영토는 신라에 귀속된다.

신라협상대표

하모, 하모!(백제협상대표를 보며 미소지으며 끄덕인다.)

소정방(중국어-자막)

단! (슬쩍 백제대표를 보며)

신라군이 식량과 보급품을 가지고 7월 10일까지 도착하지 못하면,

백제땅은 우리 당나라의 뜻대로 처리한다.

신라협상대표 (중국어-자막)

(놀라며) 뭐요?

그... 그건...그럼, 의자왕 일족의 신병처리 문제는...?

소정방 (중국어-자막)

날짜를 못 지키면, 그 역시 우리가 처리한다.

신라협상대표 (중국어-자막)

내일이 7월 10일인데, 그건 도저히 무리한...

백제협상대표 비서1

그렇다면, 시방...?

백제협상대표

우리가 내일꺼정만 어찌게 막아불면... !

백제협상대표, 소정방 말의 뜻을 알아채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다.

23.목책 위-오후

팔매,장수1과 신라진영을 쳐다보다 계단을 내려오며

계백

(팔매에게)아야, 이거 쪼께 뭐시기하잖여 시방?

신라넘들 쪽수도 많으면서 왜 총공격을 안하고 깔짝댄다냐.(팔매 묵묵부답)

24.김유신 사령부-낮

김유신과 김법민, 김흠순, 김품일, 천존이 암호 해독하는 곳으로 가면 암호해독관이 비서와 함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수많은 ‘거‘字, ‘시’字, '기'字의 한자들을 잔뜩 벌려 놓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보고 있다.

김법민

두판 다 깨지고 여기서 글자나 맞추고 있는걸 알면

울아부지 돌아뿔끼요.

김유신

(암호해독관에게) 잘되나? 그래, 몇 개나 맞췄나?

암호해독관

(열심히 암호해독을 하다가)

현존하는 한자 중엔 ‘거’자가 77개, ‘시’자가 89개,

‘기’자 176개가 있심더, 이 글자들을 조합해보면,

모두 1,206,128가지의 ‘거시기’가 존재합니더.

현재 그중에서 361가지의 거시기로 압축되었습니더.

김법민

내일이 7월 10일인데 이라고 있을끼요?

무신 일이 있어도 오늘밤 안으로 저길 통과해야 한다 안카나?!

김흠순

갸들 말고는 귀신도 모린다는 거시기를 어케 알아낼라꼬?

그냥 총공격 하자카이!

김유신

거시기가 뭔지 모르고 싸웠다가는 백전백패라카이.

해독관

쪼매만 시간을 더 주이소.

김유신

그래, 니 계속 욕봐라.

(암호해독하는 곳을 빠져 나오며)현재로선 병사들 사기 올리는기 급선무데이.

사기 올리는데는 1대1 맞짱이 최곤기라.

우리 신라군에서 맞짱 젤로 쎈 놈이 누고?

25.백제군 목책앞-오후 (제 3전 1 대 1, 맞짱뜨기)

덩치 큰 신라의 애꾸눈, 벌판 중앙 풀밭에 갈쿠리처럼 생긴 각종 무기를 어깨에 들쳐 맨 채

폼을 이빠이 잡고 서서 목책 쪽을 향해 외친다.

신라장수3(애꾸)

야, 계백이 졸개, 짝눈이 나오라캐라!

백제병사4

(목책 위에서 신라 애꾸의 말을 후방에 전한다.)

짝눈이 장군 나오라는디요!

다부진 체격에 인상 더러운 백제장수 짝눈이가 불쑥 튀어나오며

백제장수5(짝눈이)

어떤 시끼가 날 오라가라해?

백제병사4, 목책밖을 보니 애꾸가 서있다. 밖과 안을 번갈아 보며 말못하고...

백제장수5(짝눈이)

뭐? 어떤 시낀데?

백제병사4

저기... 그냥..

(짝눈이 장수에게 차마 '애꾸'라는 말을 못하고)

...저기 저 나쁘게 생긴 넘인디요..

26.벌판 중앙-낮

목책문이 열리고 짝눈이 다부지게 걸어나온다.

마주 선 둘을 보니 신라 애꾸는 왼쪽 눈이 없고, 백제 짝눈이는 오른쪽 눈이 애꾸다.

백제장수5(짝눈이)

어따, 자네 3년 전에 맽겨논 눈깔 찾으러 왔는가?

으째야쓰까 이, 정력에 좋다혀서 후루룩 묵어부렀는디.

신라장수3(애꾸)

그래서 양기가 주둥이로 몰렸는갑데이.

백제장수5(짝눈이)

거시기 쩌그 하늘이랑 나무랑 잘 봐두랑께.

오늘로 둘 중에 하나는 아예 까막눈 될 것잉께.

신라 애꾸, 무기들을 풀밭에 던져놓고 맘대로 고르라고 하자,

백제 짝눈이, 온 천지가 무기라며 맨손으로 붙겠다고 한다.

발 빠른 짝눈이를 쫓아 어떻게든 먼저 눈을 찌르려고 온 벌판을 헤매다가 지쳐버린 애꾸,

결국 짝눈이의 나뭇가지 공격에 남은 눈깔마저 찔려버린다.

27.계백 사령부-오후

의자왕이 보낸 전령이 황산벌 계백의 막사에 도착한다.

전령에게 전해 받은 의자왕의 밀지를 펼쳐드는 계백.

계백

어따, 뭐시 요렇게 길다냐... (장수1에게 주면서) 니 읽어봐라!

장수1

(의자왕의 밀지를 읽는다.)

"계백아, 거그서 거시기 허느라 얼매나 고상허냐 이.

시방 김유신이가 당나라 군대의 식량허고 보급품을 죄다 나르고 있는디...

의자왕

(어전 테이블의 지도 위에 술잔을 손에 든 채 쭈그리고 앉아 있는

의자왕 주변을 카메라가 돈다.)

"...7월 10일까정 사비성 앞에 도착 못하믄 당나라 13만 대군은

손가락 빨고 있어야 허고,

전후처리 문제는 죄다 소정방이가 알아서 거시기한다네.

계백아, 니가 거그 황산벌에서 하루 이틀만 더 거시기해불믄

나가 소정방이랑 쇼부를 한 번 쳐보것는디...

알아 묵었제? 그럼 이만..."

계백

(장수들에게) 들었제?! 우리가 거시기하면 백제는 살 수 있어야!

28.중앙벌판 신라군쪽-저녁

나무의자에 묶인 백제첩자1,2에게 신라병사3이 대본을 보여주고 신라병사2가 확성기를

입에 대고 있다. 신라병사1이 방송국PD처럼 앞에서서

문디

준비됐나? 준비됐제...

... 하그라!!!

손가락을 튕기면

백제첩자1,2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사랑하는 나으 조국, 백제의 아그들아...

문디

(뒤통수를 갈기며)

이 문디자슥들, 크게 안할래?

지금부터 둘 중 목소리 작은 놈은 이거데이?

손으로 목을 그으며 칼날을 백제첩자1 목에 대고, 또 손가락을 튕기면

백제첩자1

사랑하는 나으 조국, 백제의 아그들아!!!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신라의 품에 안긴 백제의 거시기들이랑께!

문디

좋아, 더 크게!

(손가락 튀기며 사인 주면)

백제첩자2

우리 백제는 어차피 끝장나 부렀어야!

뭐덜러고 국제정세도 모르고 전쟁에만 환장한 계백이 땜시

우덜이 개죽음을 당혀야 쓰겄냐?

문디

(칼날을 백제첩자1의 목으로 옮기며)

살리고, 살리고!

백제첩자1

고향에 계신 불쌍한 엄니와 마누라와 형제자매와 자식들을 생각혀보자,

이런 유치헌 말은 안허것다.

목책위의 백제병사들

백제병사1(거시기)

음마 저거이 뭔 소리다냐?

백제병사2

워메워메 저거, 우리 아그들 아녀?

계속 들려오는 백제첩자들의 악다구니,

살려고 경쟁적으로 소리치다보니까 이제 거의 목이 쉰 상태다.

백제첩자2

긍께, 덕물도 앞바다에 13만 대군을 태운 당나라 배가 떴을 때,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어야.

백제첩자1

(백제첩자2를 째려본 다음 쉰 목을 가다듬은 후)

아무리 느그들이 결사대라고 혀싸도 불과 5천명으로 신라군대 5만명을

으쩧게 당헌다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고 이짝 신라말로

'택도 읎데이'가 아니건냐 이...

백제병사1

워메워메 안되것다, 야 우리도 깔대기 가져오랑께, 아 싸게!

백제첩자2

사랑허는 나으 조국 백제 아그들아, 우리 오늘 톡까놓게 야그하자.

말이 좋아 결사대지 결사대가 뭐다냐, 결사대, 긍께, 어차피 디진다는 뜻

아니것냐 이.

이때 깔대기를 입에 댄 백제병사1,2

백제병사1

아,아,핫둘서이,핫둘서이, 아아 한섬두시기석삼, 깔대기 시험 중...

아야 싸게싸게, 나가 먼저 쏠팅게 잘혀라잉.

야이 싸가지가 잠시 마실 나가분 신라 족속들아,

지금부텀 내 말을 조근조근 잘 들어라 잉.

느그 쪽수 많다고 헬렐레한 넘들은 특히 잘 들어.

군사 쪽수가 많을수록 그중엔 허당이 많은 볍이다.

지금 그짝 신라넘덜 5만명이라 혔제?

계산 잘혀라잉 5만에서 뺀다... 시작헌다 잉?

밥허는 넘들 500 빼고, 물만 길어대는 놈들 300 빼고,

나무혀고 불지피는 놈들 400 빼고,

무기 수리허는 넘들 500 빼고,

말 관리허는 넘들 700 빼고, 식량 운반허는 넘들 6000 빼고,

천막 쳤다 거뒀다허는 넘들 1000 빼고,

숫자 부풀리기로 뻥튀긴 넘들 5000 빼고...

오메 숨찬거 니가 좀 빼라이...헉헉...

백제병사2

군대 안갈려고 내뺀 부잣집 아들놈들 대신 끌려온 늙은 종넘들 1000 빼고,

남의 돈 떼묵고 군대로 내뺀 넘들 200 빼고,

남의 마누라 건드리고 군대로 숨어든 넘들 100 빼고,

이런 넘들 잡으러 군대 온 넘들 200 빼고,

밥 굶다가 밥은 멕여 준대니께 군대와서

밥만 허벌나게 처묵는 뺀질뺀질한 넘들 꼭 있기 마련이여.

(백제병사3을 쳐다보며) 그려 안그려?

백제병사3

나는 밥 별로 많이 안묵어야.

백제병사2

그런 넘들 1600 빼고...이런 넘덜 다 빼면 얼매나 남겠능가?

백제병사1

달랑 김유신이 하나 남는디!

백제병사2

음마, 흥분혀서 너무 많이 빼부렀구만 이.

첨부터 다시 안빼도 될랑가잉?

백제병사3

어따, 말 많네 이.

(백제병사2의 깔대기를 탁 뺏어서 자기 입에다 대며)

“긍께 느그덜은 좆도 아니여!!”...

벙찌는 백제병사1,2.

29.김유신 사령부-오후

모여앉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김유신, 김법민, 흠순과 장수들.

김품일

내일이데이 내일!

지금 저런 짓하고 있을 짬이 없데이.

김흠순

하모! 계백이 아~들한테는 저런거 안통한다카이.

김법민

약속날짜 못지키면 누가 책임 질끼고?

이거는 참수형감이데이, 참수형! 지금 총공격 해야된다 안카나!

김유신

(서늘한 눈빛으로 법민을 보며) 총공격?! 지금 하까?

김유신, 갑자기 칼을 뽑아들고 군막을 뛰쳐나가,

미친놈처럼 “전군 공격! 공격하라! 전군 총공격하라카이!”를 외치고는 다시 들어와

김유신

(비웃으며)니 봤제? 총공격 안하네!

전쟁에는 절차가 있는 법이데이.

김법민

절차 따지다 황산벌에서 늙어 죽을끼요?!

김유신

느그들은 모린다. 전쟁이 뭔지.

지금 총공격하믄 그건 몰살이데이.

계백이 지 처자식 죽이고 나온거 보래이.

그래서 계백이 갸가 무서운거래이.

갸는 그거 한방으로 병사들 독기를 확 올려 뿐 거 아니가.

김흠순

그람 우얄낀데?! 우리가 집에 가 처자식 다 쥑이고 올까?

그라믄 전투할끼가?

김유신

가만 있어바라, 이번엔 내가 직접 나선다.

천존, 계백이한테 장기 한판 두자케라.

30.벌판 중앙-저녁/밤 (제 4전 인간장기)

사방에 횃불이 켜지고 양국의 병사들이 도르레에서 풀리는 줄을 끌고 교차하며 벌판을 내달리자,

풀밭 중앙에 격자무늬의 거대한 장기판이 펼쳐진다.

벌판 한쪽에 나란히 장기판을 향해 앉아있는 계백과 유신.

김유신은 신선 같은 가벼운 차림이고 계백은 여전히 갑옷으로 중무장을 했다.

벌판 중앙에서는 궁, 사, 차, 포, 마, 상, 졸, 병으로 치장하고 활, 쇠뇌, 도끼, 칼, 창으로 무장한 양군의 인간장기알들이 각자 장기판 위의 자기 위치를 찾아 일제히 도열하고 있다.

점차 비장한 분위기가 흐른다.

김유신

역시, 올 줄 알았데이.

김유신, 장기판의 병을 쓸자, 옆에 서있는 신라병사 '오른쪽 병 우로'를 크게 외친다

계백

우리 땅인께.

하며 졸을 쓸자,

옆에 서있던 백제병사 '오른쪽 졸 우로'를 외치고...

계백과 김유신의 손짓과 말에 따라 풀밭 위의 인간장기 판에서도 양군의 인간장기알들이

점차 무림고수들처럼 '사사삭' 상대 진영을 향해 움직인다.

김유신

덕물도 앞에 당나라 배들 떳을 때, 이 전쟁은 이미 끝난기라.

(상으로 졸을 치며) 괜한 희생자만 는다, 그만 길을 열그라.

순간 쉬익, 악 하는 소리가 들린다.

인간장기판의 인간장기알들이 각자의 고유한 무기를 가지고 서로를 죽이고 죽고 피가 튀고 살점이 튀고 뼈가 으스러지고 목불인견의 끔찍한 상황이 연출된다.

계백

무슨 개소리, 전쟁 쪽수로 하능가?

(마로 김유신의 상을 치며) 쉰소리 그만허고 어여 다음 수나 두쇼!!

장기를 두는 두 사람의 팽팽한 기가 느껴진다..

김유신

처자식을 죽이고 나왔다카데?

계백

(비꼬며) 쌀배달 나섰담서?

얼굴이 일그러지는 김유신.

대꾸없이 장기판만 바라보고 말을 움직인다.

김유신

(포로 마를 먹으면서)

포장 받게, 계백이!

(인간장기판에서 퍽! 악! 소리 들린다)

여유 있는 표정이 되는 김유신.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며

김유신

....그게 당태종도 탐냈다던 천하무적 백제 갑옷이가? (말을 옮기며)

안덥나? 좀 벗그레이. 니 땀띠 난데이.

계백

(응수하며)아, 거시기허기 전엔 못벗제!

김유신

아, 이 사람아... 보는 사람이 답답해서 그러지... 좀 벗게!

거시기하고 벗는거나, 벗고 나서 거시기하는거나...

계백

(왕 짜증내며) 어따, 이 영감 겁나게 답답허네!

디지기 전엔 안 벗는다니께. 보여주까? 봐봐 보랑께 (꼬멘 갑옷을 보여준다)

나만 꼬메분게 아니라 우린 다 꼬메불었당께.

김유신

알았네, 알았어... 다 알았어!

('거시기'에 대한 전모를 알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 김유신)

장기판의 양쪽 궁 뒤에는 장수들이 도열해 있고, 풀밭 위의 인간장기판은 피범벅 아수라장이다.

어느새 장기는 김유신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리는 듯하다.

인간장기판에는 백제병사들의 유혈이 낭자하다.

계백의 장기알 몇 개 안 남고, 차로 유인하는 계백.

계백

(비호같이 상이 뛰어나가며 포장길을 벗어남과 동시에)

멍이야 장이야!

여지없이 계백의 외통수에 걸려드는 김유신.

찰나, 인간장기판을 지켜보던 백제장수1 하나,

백제장수1

외통수다!

김유신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계백이, 인간은 지가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자기 입으론 자기 팔꿈치를 핥지 못하는 존재데이.

내일 보세. (돌아서는 김유신)

계백

('뭔소리여 시방?'하는 표정으로 있다가,

자기 팔꿈치를 핥아보는데 영 안된다)

음마, 이거시 정말 안되네이...

31.사비궁 어전-밤

중신들은 자리를 비웠고, 의자왕 앞 한쪽으로 왕자들만 도열해 서 있다.

급히 들어오는 전령1

부여융

아부지, 소정방이의 13만 대군이 기벌포에 상륙했어라.

부여효

이제 김유신이가 쌀 가지고 도착만 허면

여그 사비성 아작나는건 시간문제네 이?

부여태

황산벌에선 계백이가 4번 싸워 4번 모두 이겨부렀당께요!

의자왕

그럼 신라넘들 내일까정 도착하는건 물건너 간거네!

부여효

오메 아부지,

계백이가 막고 있을 때 얼릉 웅진성으로 피합시다잉.

부여태

시방 고것이 왕족이 할 말이여?!

디질 때 디지더라도 끝까지 싸워야제!!

부여융

가긴 어디로 가고 싸우긴 뭘로 싸울겨?! 나한티 묘수가 있당께로!

부여효

뭐여, 뭐시여?

부여융

천년 전에도 통했고, 지금도 통하고, 천년 후에도 통할 것!

그것은 바로... 뇌물!!!

부여효

근디 이짝에서 멕일랴고 혀싸도

저짝에서 야멸차게 거절해불면 으쩔거시냐?

부여융

어따 성님, 고것이 바로 뇌물의 묘미여라.

한번에 덥석 받아처묵는 것은 뇌물 축에도 못끼제라!

“어허, 이 사람이...”허면시롱 거절허는 과정 속에서

이심전심으로다 통해 불고 모든거시 아쌀하게 정리되부는거,

고거시 바로 뇌물의 진수랑께요!

의자왕

셋째 니가 뇌물에 대해 으찌 그리 빠삭하다냐 이?

부여융

어따, 고기도 묵어본 놈이 안다고,

뇌물도 묵어본만큼 알고 아는만큼 묵는거지라!

나가 소정방이 아가리를 벌려서라도 처멕여 불텡께로,

나만 믿어부쇼!

32.임자의 집-밤

어전을 떠난 중신들 거의 모두 임자의 집에 모여 있다.

임자(off-sound)

엄메, 김유신이 시방 뭐하고 있는거여?

중신1

어전에서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 시간 끌어줘,

군사동원 못하게 막아줘, 백제쪽 내부정보 알려줘,

우리가 더이상 어쩧게 핥아줘야 하는겨, 시방?!

중신2

지금쯤은 사비궁에서 김춘추랑 김유신이랑

술 한잔 찌클고 있어야 하는거 아니냔 말이여?

중신1

이러다 계백이 땜시 우리만 좆되부는건 아니것제?

중신2

계백이넘을 암살해불까잉?

임자

씨벌넘! 계백이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드만...

중신1

이왕 이렇게 된거 계백이가 버티는 동안,

우리가 직접 소정방이헌테 작업들어가 불자.

임자

그려! 김춘추 쪽보단,

소정방이 쪽으로 붙는거시 부가 있는거 같당께로, 시방!

중신1

아니여, 그러다 잘못되면 김춘추놈헌테

무슨 험한 꼴을 당헐라고...

이럴 때는 짱보믄서 찌그러져 있는게 최고여!

임자

이런 넨장할, 역적질 해묵기도 힘드는구만...

33.기벌포 소정방 캠프-밤

소정방, 신라와 백제의 협상 대표 전후처리 문제에 대해 계속 협상 중이다.

소정방 옆에는 지도가 걸려있다. 그 옆에 서있는 김인문

소정방(중국어-자막)

단 5천 군사를 가지고 5만을 대적하다니,

계백이란 장수 거 대단하구만.

소정방이 지도를 작대기로 (국경부터 낙동강까지) 쭉 훑어내리며,

소정방(중국어-자막)

(여유자작하게 무슨 놀이를 하듯)

김유신이가 오늘까지 못오면 신라국경이 어디까지 내려가나,

대동강은 택도 없고, 예성강도 물건너 갔고, 한강도 날샜고,

낙동강까지 원위치 하겠구먼.

소정방, 낙동강을 작대기로 콱 찍으면 신라협상대표의 얼굴이 하얗게 일그러진다.

신라협상대표(중국어-자막)

하루만 시간을 더...

소정방(중국어-자막)

장난하나 지금!

신라협상대표(중국어-자막)

좋습니더! 김유신장군 도착과 상관없이

우리 신라는 백제땅 포기할테니,

의자왕 처리만은 저희 신라측에 넘겨주십쇼!

소정방(중국어-자막)

그건 황제의 명에 의해 정한다 했잖나!

신라협상대표(중국어-자막)

(넙죽 엎드리며)

안됩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쇼!

백제협상대표도 무릎을 꿇으며

백제협상대표(중국어-자막)

왜국으로 망명할 수 있도록 고려해주심이...

소장군님 재량에 달린거 아니겠습니까?

신라협상대표

패망한 나라의 왕이 죽어야지 가긴 어딜 간단 말이가?

백제협상대표

이 잡것! 말하는 싸가지 좀 보소잉.

'뭐시여?'....

신라대표와 백제대표가 싸우면

음흉한 미소를 짓는 소정방.

34.김유신 사령부-아침

김춘추의 전령서를 가지고 황산벌을 말달려 신라 진영으로 들어가는 전령.

모여 앉아 대책을 숙의하는 김유신, 김법민, 김흠순, 김품일 등 장수들.

김법민, 김춘추에게서 온 전령서를 읽다가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김법민

울 아부지가 무조건 총공격하라칸다!

5만군사 다 죽어도 괘안으니 총공격해서

내일까지 무조건 사비성 앞에 보급품을 대라카신다!

김유신

아야, 총공격하다 군사 다 잃고 보급품까지 뺏기면, 당나라 넘들은 굶어 죽거나 배 돌려 가불끼고. 그럼 우리가 백제한테 먹히겠네.

김법민

(고집스럽게) 하라면 할 것이제 무신 말이 그래 많노!

김유신

이기 어디서?!

김법민

어디서라니?! 내는 이 자리에 왕 대신 있는기야!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대장군이고 뭐고 당장 직위해제라카이!!

순간, 김유신 삿대질하며 길길이 날뛰는 태자 김법민의 뺨을 때리고 뺨을 맞은 김법민 쉬익-하며 칼을 뽑아든다.

김유신

직위해제?!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새끼가!

니가 적진영에 뛰어들어 니 목을 바칠 수 있다면

그 칼로 내 목을 쳐라.

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다가 칼을 던져버리는 법민.

김유신

니나 니 애비는 정치는 알아도 전쟁은 모린데이.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기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기야!

(김흠순과 김품일에게 싸늘한 눈빛을 보내며)

둘 다 아들이 화랑이제?! 밥값 좀 해야겠데이.

35.무덤가-아침

김흠순이 아들, 20대 화랑 반굴을 데리고 이야기 중이다.

김흠순

니 뭐꼬?

반굴

내 반굴 아인교?

김흠순

이름 말고, 니 뭐꼬 말이다?

반굴

내사 마, 신라 사람이데이!

김흠순

그것도 말고?

반굴

...?

김흠순

니 와 화랑됐다 켔지??

반굴

남자는 명예 아입니꺼?

김흠순

우리가 백제 결사대를 뚫을라카면

병사들의 사기가 젤로 중요하데이.

반굴

하모!

김흠순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려면 누군가 죽어야 한데이.

반굴

하모!

김흠순

그것도 고위층이 죽어야 한데이.

반굴

아부지가 죽을라캅니꺼. 사나입니데이.

김흠순

(허둥대며)어데?! 이 애비는 죽을라케도,

늙은 놈은 죽어봐야 약발이 안먹힌다카네.

반굴

그럼 누가 죽으면 약발이 받는데예?

김흠순

(정색하며)

니는 김유신의 조카이자 사위데이,

니가 죽으면 약발 끝내줄끼다!!

반굴

......

김흠순

바라바라, 가늘고 길게 산 인간치고 역사에 이름 남는 사람 있드나?

니 큰아부지고 내 행님인 김유신이도 남는데이.

계백이 갸도 남는데이.

아야, 군인이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법은 딱 두가지 뿐이데이.

억수로 사람을 많이 쎄리 죽여삘든가,

화끈하게 짧고 굵게 죽어 삐는기다.

사람이 몇 년 사노?

반굴

아부지, 내는 길게 살고 싶다.

김흠순

길게?!

니 오늘 폼나게 죽으면 니는 천년을 산데이.

내도 죽고 싶다. 죽고 싶어 민지겠다.

하지만 내는 죽어봐야 약발이 안맥히니 우짜노.

(자기 머리와 반굴의 머리를 연신 부딪히며)

니는 된다. 된다. 돼. 돼, 내를 믿어라, 니는 된다카이!

먼저 가는 놈이 장땡이데이!

니 사나이제? 맞제? 그쟈?

반굴

(계속되는 박치기를 감당 못하고 결심한 듯)

고마하소 아부지, 내 갑니더!

뛰쳐나가는 반굴.

36.김유신 사령부 뒤편-아침

김품일이 10대 아들, 화랑 관창을 불러놓고 얘기 중이다.

김품일은 관창을 등지고 서 있다.

김품일

우리는 진골정통의 뼈따구 있는 가문이데이.

김유신, 김흠순이 같은 가야파 놈들한테 밀려서 되겠나.

오늘부로 사군이충, 사친이효, 붕우유신, 임전무퇴, 살생유택,

세속오계 이거 다 개소리다!

오늘부로 화랑하면 관창! 관창하면 화랑이다!

이 한마디면 되는기다. 니는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끼야.

관창

(의심의 눈초리로)

아부지, 지금 누가 시켜서 이러는거 아니지예?

김품일

하모! 세상에 누가 시킨다고 지 자식을

죽음으로 내몰 애비가 어딨겠노?

관창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아부지, 이거 정말 개죽음 아니지예?

김품일

무신 소리! (코치가 역도선수 뺨을 때리듯 두 손으로 양쪽 뺨을 때리며)

넌 뜬다! 뜬다! 반드시 뜬다! 내가 보장하마!

화랑 관창 역사에 길이 남으리!

관창아, 꿈은 이루어진데이.

그랄려면 니 기냥 죽으면 안된데이.

정신 바짝차리고 죽어야 한데이!

폼나게! 비장하게! 장열하게!

(모션을 취하는 품일)

이기 중요한기라!

넌 뜨게 되있어! 틀림없데이.

안뜨면 내가 니 아들이데이.

(하는 사이, 반굴이 말에 올라 신라 진영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에잉?! 김흠순이, 문디자슥이 선수치네!

37.목책앞-아침

반굴이 말 위에서 창을 치켜들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달려온다.

계속 혼자 뭐라 외치며 달려오는 반굴.

반굴

내는 신라의 화랑 반굴이데이!

어느새 예쁘게 화장이 되어 있는 반굴의 얼굴.

백제병사2

뭐시여 혼자잖여...

백제병사3

씨벌놈이 식전부터 사람 놀래키고 지랄이여

돌아서서 무시해버린다.

반굴, 계속 소리치지만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다.

목책 앞에 선 반굴, 거의 쉰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

백제 경계병들 어이가 없어 바라보고 있다.

반굴

계백은 퍼뜩 나와 내 칼을 받으라카이!

백제병사4

저 놈 미쳤구만, 창을 휘두르면서 칼 받으라고 지랄이네

백제병사5

야, 너 뭐시여? 왜 아침부터 시끄럽게 지랄이여 지랄이!

반굴

난 신라의 상대등겸 대장군인 김유신의 조카이자 사위이며,

김유신의 아우이신 김흠순장군의 아들인,신라의 화랑,반굴이라카이!

당장 계백이 나오라캐라!

백제병사1(거시기)

어따. 호로자슥! 조카믄 조카고 사위믄 사위지,

조카믄서 사위는 또 뭐랑가?

반굴

계백이 나오라캐라!

백제병사2

싸가지 엇다두고 왔냐? 계백이가 니 친구냐?

백제병사3

(뒤통수를 치면서) 시벌놈, 그럼 니 친구냐, 계백이가?

그때, 누군가가 던진 창이 날아가 난리 치던 반굴의 가슴에 꽂혀버린다.

백제병사1(거시기),2

음마마!

38.김유신 사령부-아침

늙은 병사들 3명이 김유신 앞에 약간 겁을 먹은 채 서 있다.

김유신

니들이 날만 궂으면 삭신이 쑤시는 놈들 맞어?

'우리들을 왜 불렀을까'하는 겁먹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노인 병사들.

김유신

지금 쑤셔 안쑤셔?

노병들 몸 여기저기를 만져보고 주물러보더니...

노병1

(엄살을 부리는 듯)

쪼개 쑤실려고 하는 것 같심더. 마...

노병2

전 아까부터 쑤시기 시작했고마요.

지금 같아서는 오후쯤 비가 올 것 같심더.

노병3

(안그래도 쑤셔죽겠다는 듯) 하이고 그려 그려, 오다마다

김유신

확실해? 금새 빗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억수로 쑤시면

나한테 얼렁 얘기하그레이.

39.계백 막사-아침

카메라 팬하면 장수들 줄지어 앉아 팔꿈치를 거시기하고 있다.

계백, 장수들 앞을 지나가며

계백

거봐! 안되지? 잉?

여러 장군들 계속 기를 쓰며 해보지만...

계백

(혼잣말로)

이 영감탱이가...?

그럼 나한테 지 팔꿈치를 핥아 달라는 거여 뭐여, 시방!

이 때, 함성이 인다. “또 온다!”

40.백제군 목책-오전

마침내 백제의 목책 앞까지 달려온 관창, 멀찌감치 떨어져서...

관창

계백은 나오라,

내는 신라대왕 김춘추의 사위인 전 대야성주 김품석의 아우이신

현 신라 우장군 김품일의 아들 화랑 관창이데이!.

백제병사1(거시기)

어따 저 엠병할 넘덜은 아침부텀 정신사납게

족보를 씨부리고 지랄한다냐.

백제병사2

그려 곱창아, 뭐더러 왔냐잉?

관창

(활을 쏘며) 계백이 나오라카이!

백제병사3

저런 호로새끼!

계백이가 동네 개이름이냐 니까짓게 나오라마라허게!

계백,장수들을 거느리고 목책위로 올라오며

계백

(큰소리로) 저놈은 절대 죽이지 말고 사로 잡어라.

목책 문을 열고 창을 들고 뛰쳐나가는 백제 병사들.

관창, 활을 쏘고 창을 휘두르며 저항하다 백제 병사 몇을 부상 입히고 말에서 떨어져

그만 사로잡힌다.

관창

(잡혀서도 꽁꽁 묶는 백제병사들을 대가리로 박으며)

죽여! 죽여라카이! 죽여야 된데이!

몸부림 발광을 한다.

“가만 있어, 시불놈아! ”하며 귀싸대기를 붙이는 백제 병사.

목책 밖으로 나오는 계백과 장군들.

계백

(혼잣말로)김유신, 그렇게 쉽게 핥아줄 순 없제.

저놈을 죽이면 놈들의 작전에 걸리는 것이여

관창

야 이 새끼들아, 죽여라! 죽이라카이! 내 살아서는 몬간다.

(시간경과) 재갈이 물려있는 관창의 얼굴 C.U.

미이라처럼 밧줄에 꽁꽁 묶여 말에 태워 돌려보내지는 관창. 말 위에서도 계속 난리다.

41.신라 방패진영 뒤-오전

관창, 김품일에게 사정없이 맞고 있다.

김품일

(관창을 사정없이 두드려 패며)

니가 화랑이가? 니가 화랑이냐꼬?!

관창

에이씨! 아부지 니가 한번 가보래이.

갸들이 죽어도 안죽이는데 어카노?

김품일

뭐라꼬? (더 무자비하게 팬다)

죽지도 못하고 온기 무신 큰소릴!

관창

알았다카이! 가서 콱 디져뿔면 될거 아닝교,

내사 다시 간대이!

관창, 터프하게 물 한모금 마시고 다시 나간다.

김품일

니 이번에도 못디지면 내가 칵 쥑이삔데이!

한쪽 구석에서 그 모습을 보던 병사들 수근댄다....

신라병사1

너무 하는거 아인교?

신라병사2

저 친아부지 맞소?

42.백제군 목책-오전

다시 백제 진영을 향해 내달려오는 관창.

백제병사1(거시기)

음마 저시끼 또 왔네이.

관창

계백이 니 사나이 맞나?!

겨우 이럴려고 처자식을 죽였나?!

목책위의 계백.

계백

....잡아와!!

43.구령대

계백이 계단을 내려오면 질질 끌려온 관창.

계백

관창이라 혔나? 너 몇 살이여 시방?

관창

묵을만큼 무따 와?!

계백

시방 누가 시켜서 이러능가?

관창

니는 누가 시켜서 가족을 몰살시켰나?

눈에 띄게 표정이 일그러지는 계백.

백제병사2

음메 어린 넘이 말하는 것 좀 보소.

계백

(혼잣말로) 좋아, 핥아주지.

목을 쳐라.

장수1이 칼을 빼어들어 내려친다.

44.신라 방패진영 앞-낮

관창의 베인 머리를 달고 돌아온 말.

김품일, 아들 관창의 머리가 담긴 보자기를 부여잡고 비통해하고 있다.

그 뒤에 서있는 김유신과 김법민, 김흠순, 천존과 장수들.

관창의 죽음을 맞이하는 병사들의 공포에 젖은 표정.

신라병사2

김유신이가 불리하면 꼭 써묵는 수법 아이가?

신라병사3

저 짓도 한두번이지 저런다고 사기가 올라가나?

김유신, 아들들을 잃은 김흠순과 김품일의 슬픔을 애써 외면한 채

흐린 하늘을 보고 있다가...

김유신

화랑들을 계속 보내라!

김흠순

행님, 니 미쳤나?!

김유신

그래 미쳤다!

전쟁은 미친놈들 짓인기야!!

지 가족 모두 처죽이고 나온 계백이가 제정신이가?

글마가 미치면 내도 미친다.

미친 놈한텐 미친 놈이 약인기라!

니 죽기 싫으면 가만 잇그레이...

분위기 잡혀가는데 산통깨지 말고.

(모여있는 화랑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화랑들을 계속 보내!

꽃은 화려할 때 지는기야!

싸늘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김유신.

45.몽타주(황산벌)-오후

(뮤직 시퀀스)

쭉 늘어서 앉아 화장을 하고 있는 화랑들

서로 마주보고 앉아 상대의 얼굴에 화장을 해주는 모습들이 보인다.

46.김유신 사령부-오후

김유신이 상기되어 장수들 이끌고 사령부로 들어온다..

삐꾸기 1,2가 부동자세로 서 있다.

그 옆에 앉아서 온 몸이 쑤셔 어쩔 바를 모르고 연신 몸 여기저기를 주무르고 있던 노인병사들이 일어서며

노병1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삭신이야, 아고 팔다리허리어깨야.

장군님, 한 식경안에 비가 옵니더. 와!

노병2

무릎이 그냥 쑤시면 장마가 지는데요,

등줄기를 타고 어깨로 돌아 내려와서
허리를 한바꾸 휘감아 돌고
엉치를 지나 양 무릎이 시큰한 걸 보이까네

틀림없이 소내기가 두차례 오겄네예!

노병3

(거의 죽을 것처럼 땅바닥에 뒹굴며)

아이고, 장군님 학실허게 감이 오네요 와!

김유신

(장수들을 향해)

투석기를 전진배치시키고 구덩이를 파, 그곳에 찰흙을 만들라!

글고 니들 뻐꾸기는 병사들의 적개심을 극대화하라!!

뻐꾸기 1,2

예!! (뛰어나간다)

47.신라군 진영-오후

흙을 퍼서 들것에 담는 신라병사들.

같이 흙을 퍼 담으며 말 거는 뻐꾸기 1,2

신라병사4

야, 백제 땅 한번 좋네, 이 흙, 얼매나 찰지고 좋노.

내는 이 백제놈들 땅 하나는 욕심난데이. 좋다, 좋아!

신라병사2

살 떨어졌나 이기 뭐꼬? 흙밥을 멕일라고 이러나?

계속 달려 나가는 화랑들.

신라병사1

씨발, 아새끼들만 다 디진데이, 이기 뭐꼬?

빼꾸기1

백제놈들 진짜 독하데이,

자식뻘되는 아~들을 눈도 꿈쩍 않고 죽이는거 보래이!

달려나가는 화랑들을 바라보는 신라병사들.

48.백제군 목책앞-오후

계속 달려오는 화랑들을 활과 창으로 죽이며 한마디씩 하는 병사들.

백제병사1(거시기)

음마, 이거 장난이 아니시, 기분이 쪼께 거시기헌디...

백제병사3

쪽수 많다고 자랑하는거여 뭐여 시방.

49.신라군 진영-오후

물 기르고 있는 신라병사5,6과 빼꾸기1,2.

신라병사5

농번기에 농사짓다 끌려와서 이기 뭐꼬?

신라병사6

(달려 나가는 화랑 슬쩍 쳐다보고는)

내도 인자 징그럽데이 이러고 있는거,

삐꾸기1

이기 다...백제놈들 때문 아닌교?

삐꾸기2

맞다, 내는 울 할배 때부터 백제새끼들하고 전쟁해온 집안인기라.

삐꾸기1

(지들끼리 죽을 맞춰가며)

하모! 내는 저 문디새끼들 하곤 같은 하늘 아래서 몬산데이!

삐꾸기2

니 말 맞다, 우리 신라와 백제는 원래 뿌리가 다르다카더라.

조상이 다르다 이 말이다.

신라병사7

아 그라고 보니 생긴 것도 좀 다른 것 같네.

말씨도 완전히 다르고...

50.목책위-오후

달려와 죽는 화랑을 쳐다보며

계백

싸움은 이제부터여. 여기서 무너지면

그동안 거시기한거 말짱 황이여.

(장수들을 향해 돌아서며)

오늘만 버티고 낼부턴 맘 푹놓고 죽어불자.

51.신라군 진영-오후

아직도 계속해 백제 진영으로 달려 나가는 화랑들.

구덩이에 들어가 막대기로 찰흙과 풀 등을 휘저으며 반죽하고 있는 뻐꾸기1,2와 신라병사 7,8,9

뻐꾸기2

바라바라! 갸들은 거 말투가 그기 뭐꼬, 이랑께, 저랑께.

만날 그놈의 거시기, 뭐시기. 거시기가 뭐꼬?

뻐꾸기1

맞다, 맞다! 갸들은 응큼하데이. 속을 알 수가 없데이.

뻐꾸기2

이 좁은 땅에서 우리 후손들이 편하게 살려면

한 쪽은 망해야 하는기라.

신라병사6

밟을 때 학실히 밟아야 한데이.

신라병사5

하모! 그래야 다신 못엉기제.

안그러면 두고두고 골치아프데이.

병사들의 적개심이 높아가는 것을 확인하며 흐뭇한 미소를 교환하는 빼꾸기1과 빼꾸기2.

52.백제군 목책위-오후

계백부터 말단병까지 취사병들이 나눠주는 주먹밥을 잡고 비장하게 먹고 있다.

최후의 만찬인가??

53.김유신 사령부-오후

장군들 김유신을 필두로 비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김법민

공격은 언제 시작하능교?

김유신

(생각을 정리하며 뜸을 들여서)

...법민아, 니는 내 조카제?

김법민

(머쓱해하며)예.

김유신

흠순아. 닌 내 동생이제?

김흠순

하모.

김유신

김품일이 닌 법민이 사돈이제.

김품일

예,대장군.

김유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친척이제?

남이 아닌기라.

법민, 흠순, 품일

(서로 눈치를 보며 의아해하며)

....

김유신

이중에서 법민이는 왕이 될끼고, 우리는 대신라국의 자랑스런 장군이 되가

법민이를 도울기다. (사이) 우린 당나라를 위해 사우는기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사우는 기다. 알긋제?

우린 우리 자신을 위해 살배달 가는기다. 분명하제?

우린 남이 아니제? 우리가 남이가?!

법민,흠순,품일

아닙니더!

김유신

인자부터 싹쓸어 버리는기라. 각오됐나?!

법민,흠순,품일

(우렁차게)예!!

뻐꾸기1,2 뛰어 들어오며,

뻐꾸기1

대장군이 하라는대로 켔드마는...

뻐꾸기2

분위기 금방 잡히데예.

김유신

욕봤데이.

(장수들에게)

됐다. 가자. 인자 우린 이긴다!!

54.백제군 구령대 앞-오후

중장갑으로 무장한 기마병과 보병(100명 정도)들을 모아 점검하는 계백.

계백이 눈짓을 하자 한쪽에서 누군가 백마 한 마리를 끌고 나오고,

이어 장수1이 칼로 백마의 목을 벤다.

쏟아져 흐르는 백마의 피를 손에 묻혀 한명씩 차례로 입술에 쓱- 칠한다.

계백 이하 장수들, 병사들의 얼굴이, 전율이 흐를 정도로 시뻘건 피로 물들어 있다.

계백, 병사들의 의식이 끝나자 칼을 뽑아들고,

계백

자랑스런 백제의 아그들아,

머덜라고 백마의 피를 입술에 발른거시더냐?

고거슨 바로 죽음의 맹세가 아니더냐?!

사는 것은 불확실한거시다.

이 징헌 놈의 인간시상에 확실한 것은 딱 하나 뿐이여.

그것은, 사나이가 미련과 변명을 버리고,

아쌀하게 거시기하는거다!

우리 오늘, 여그 황산벌에서, 아쌀하게 거시기해불자!!!

장수1/병사들

(장수1의 거시기 선창에 따라 병사들 해불자고 복창한다)

거시기 해불자! 거시기 해불자!

거시기! 해불자! 거시기! 해불자!....

입술과 얼굴에 붉은 바디페인팅을 한 붉은 악마들의 응원 같은 분위기다.

55.몽타주(황산벌)-오후

온 몸이 쑤셔 거의 몸부림치는 신라의 노인 병사들.

일제히 하늘을 보는 김유신과 신라 장군들, 먹구름이 온다.

신라군은 전진 배치된 투석기를 중심으로 서있다.

경보병으로 구성된 제 1군이 전진배치 된다.

천존

(말에 올라탄 채 큰 소리로)

이번 전쟁 승리에 따른 전리품과 백제땅은

모두 너희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겠다!!

뇌성이 일고 번개가 친다.

바람이 분다.

방패 진 사이로 줄지어 나와 불화살을 겨냥하는 신라궁수들(30여명).

천존의 "발사"란 구호가 떨어지자 깃발이 올라가고,

백제군의 목책을 향해 일제히 발사되는 신라군의 불화살들.

첫 번째 궁수들이 뒤로 물러서고 두 번째 궁수들이 도열해 불화살을 날린다.

백제 목책과 천막 등에 불화살이 날라와 꽂힌다.

대형쇠뇌를 장전해 발사하는 신라군.

대형쇠뇌가 백제의 목책에 박힌다.

목책 위에서 일제히 활을 쏘는 백제 궁수들(20여명).

목책 위에서 대형쇠뇌(한화전-한번에 50여발의 화살을 장전하는 쇠뇌)를 장전해 날리는 백제 병사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천존의 '공격!'소리와 함께 공격의 북을 울려대는 신라군.

선두에 선 기마병(30)을 중심으로 분쇄기, 사다리(2) 등과 함께 목책을 향해 진격하는 신라군들(140)

백제군 목책에 사다리가 거춰 되고 동시에 목책 정문을 분쇄기로 부수기 시작한다.

뜨거운 물로 정문을 부수는 신라군을 공격하는 백제군들.

목책의 여러 곳에서 전투가 벌어진다.

온천지에 소낙비가 퍼붓기 시작한다.

정문이 분쇄기에 의해 뚫리자 '전군, 돌격!'을 외쳐대는 천존.

목책 안으로 쏟아져 들어간 신라군과 백제군이 목책 안에서 전투를 벌인다.

뒤쪽 망루에서 지켜보던 계백이 신호하자, 신호 깃발이 올라가고,

동시에 정문 위에 숨겨져 있던 두 번째 문이 내려와 닫힌다.

대부분의 신라군이 목책 안에 고립된다.

계백의 '전군, 공격!'이란 신호와 함께

목책 안의 여러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쏟아져 나오는,

백제군의 주력부대인 검은 갑옷으로 무장한 중기갑병들과 기마병들.

계백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한 것이 마치 철벽과도 같은 모습들이다.

신라 병사들의 창칼과 활이 갑옷에 부딪혀 튕겨져 나온다.

당황하는 신라 군사들을 일방적으로 도륙하기 시작하는 백제병사들.

신라병사 1,2,3,4,5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 모습들.

빗물과 핏물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는 전장.

백제장수1

장군, 일방적인 승리 같당께요.

백제장수2

이거 뭔가 좀 이상한디요.

계백

저쪽 기병들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혀.

이때, 하늘을 까맣게 뒤덮으며 날아오는 찰흙 무데기들.

신라군들이 투석기 바구니에 찰흙을 퍼 담아 백제의 목책 안을 향해 발사한다.

목책 안에서 전투를 벌이던 신라, 백제 병사들이 날아온 찰흙 무더기를 뒤집어쓴다.

점차 진창이 되는 백제 진영. 신라군들은 거의 전멸한 상태이다.

백제 기마병들이 미끄러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계백

이거였나?

계백, 어두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본다.

수없이 날아오는 찰흙들...

그 때, 소낙비가 거짓말처럼 그치고 갑자기 해가 쨍쨍 내리 비추기 시작한다.

갑옷 사이에 낀 진흙들이 점차 말라가는 것이 보인다.

물먹은 갑옷, 찰흙의 물기가 마르자

갑옷이 뻑뻑해지며 백제군들의 동작이 이상해진다.

하나둘씩 갑옷을 벗기 시작하는 백제의 병사들.

계백

갑옷을 벗지 마라!!!

장수들

갑옷을 벗지 마라!!!

벗지 말고 갑옷에 흙을 파내랑께!!!

나뭇가지를 들고 마주서서 붙은 채로 서로의 갑옷에서 찰흙을 파내주는 백제 병사들.

신라진영,

김유신이 신호하자,

붉은 깃발이 올라가고 2차 진격의 북소리가 울린다.

중무장한 신라의 기마병과 보병들이 등장한다.

(기마병30, 보병200, 고2)

천존

제 2군 고옹~격!!!

달려오는 신라군들을 목격한 백제 병사.

징을 치며 “또 온다아!!!”고 외친다.

둘씩 마주서서 서로의 찰흙은 털어내던 백제병사1,2,3,4 등 병사들 당황하기 시작한다.

빽빽해서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자 통통 뛰어보다가, 한사람 두 사람씩

갑옷을 벗어버리기 시작한다.

연신 갑옷을 벗지 말라고 소리치는 장수들....

둥둥둥 북소리와 함께 무서운 기세로 달려오는 신라군들.

'고'(2대)와 함께 기마병, 보병들이 총공격을 감행한다.

계속 갑옷을 벗는 백제군들.

계속 갑옷을 벗지 말고 털어내라고 명령하는 장수들.

징을 쳐대며 "온다, 온다!"를 외치는 백제군.

빽빽한 사지를 뒤틀고 악을 쓰며 몸부림치다가

도저히 못 참고 칼로 찢어 갑옷을 벗어버리는 백제 병사들.

점차 불안과 흥분의 분위기가 고조되자, 아예 윗도리를 모두 벗어버린다.

계백

(자신의 칼로 꿰메진 갑옷을 북- 찢어내며)

좋다! (충혈된 눈으로) 벗어라, 모조리 벗어부러라!

계백 자신도 갑옷 상의를 벗어버린다!

계백

죽어 불자! 여기서 죽어 불자!

병사들 하나씩 죽자, 죽자!를 외친다.

목책에 '고'가 올려지고, 동시에 정문도 부수기 시작하는 신라군.

백제군이 사력을 다한 전투가 벌어진다.

정문이 뚫리는 것을 막기위해 사력을 다하지만 결국 정문은 부서지고,

일제히 목책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신라군.

목책 안의 여러 곳에서 죽고 죽이는 처참한 살육전이 계속된다.

백제 목책 안의 2차 방어선이 무너지고

백제병사 1,2,3,4 등 병사들, 장수들의 지시로 3차방어선까지 후퇴한다.

그곳에서 최후의 결전을 치를 듯이...

안에서 죽자! 죽자!란 소리가 들려나오자,

잠시 멈칫하더니, 뒤이어 도착한 신라 보병들이 죽여라! 죽여라카이! 하고 외치자,

일제히 죽여라카이! 하며 안으로 백제군을 쫓아 밀려들어간다.

백제군의 죽자! 죽잔께!와 신라군의 죽여라! 죽여라카이! 란 외침이 뒤섞인다.

다시 뇌성벽력이 치고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나무로 둘러쳐진 여기저기 진영 안마다 신라군과 백제군의 처참한 살육전이 벌어진다.

전황은 점차 갑옷으로 무장한 신라군이 천존의 지휘로

웃통 벗은 맨몸의 백제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냥처럼 변해간다.

백제장수1과 백제병사2,3,4,5들이 차례로 죽어가는 모습, 모습들...

개처럼 기어 다니며 이리저리 피하는 백제병사1(거시기)의 모습

타악기의 울림 속에서 장송곡처럼 태평소 가락이 애잔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여기저기 호랑이 가죽처럼 버려진 백제군의 갑옷들...

갑옷에 묻은 찰흙들이 빗물에 씻겨나간다.

핏물이 흘러나오는 시체들...

그 안에서 밀리면서도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계백, 여전히 계백의 뒤를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계백을 보호하는 팔매.

비가 그친다. 다시 쨍쨍 내려쬐는 햇살.

56.백제군 진영 식량창고-오후

입구를 임시로 막은 창고에 갇힌 계백과 팔매. 백제장수1,3과 백제병사1(거시기).

모두 죽고 다섯 명 남았다. 우리에 갇힌 맹수들 같다.

창고 뒤쪽에서 도끼로 개구멍을 파는 장수1.

계백

거 날씨 한번 겁나게 덥네 이.

백제병사1(거시기)

어따, 날이 더워야 나락이 여물지라잉.

장수1

(도끼로 판 개구멍 앞에서)

장군! 어서 피하시죠.

백제병사1(거시기)

(공포에 질려 떨면서)

아따 염병허시요잉. 여그서 죽자했으면 죽는거제.

추접스럽게 시방 머한다요. 깨깟허게 갑시다이.

옛말에, 호랭이는 죽어서 거죽을 냄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냄긴다고 안협디까?

계백

니 이름이 뭐시여?

백제병사1(거시기)

나겉은 놈이 이름 냄겨서 뭐더것소 이.

그냥 거시기라고 알아두쇼!

이때, 밖에서 '계백, 계백 나와라 나오라카이!!' 함성소리.

계백

....

장수3

장군님, 싸게 피신을...

계백

거시기, 자넨 뭣허다 왔는가?

백제병사1(거시기)

농사짓다 왔지라,지금쯤 나락이 거진 다 여물었것는디...

울엄니 혼자서 존나게 고상허게 생겼네 이.

계백

죽을 때 죽더라도 뭔가 하난 냄겨야 되지 않겠능가이?

난 거시기 자네를 남기고 싶구만...

가게, 가서 나락이나 잘 비게

백제병사1(거시기)

워메 장군, 징하시오 이. (하고 목책틈으로 빠져 나가는 거시기)

계백

...가자, 외통수에 걸렸으면 싸게 장기판을 걷어야제.

(칼을 들며) 전~군!

(일제히 칼과 창을 들면) 공~격!

57.백제군 식량창고 앞(오후)

창고 문을 박차고 튀어나오는 백제군 고작 네명.

나오자마자 신라궁수들 100명, 일제히 겨누고 있던 활시위를 당긴다.

팔매, 처음으로 계백의 앞으로 나서 고슴도치처럼 화살 받이가 되어 쓰러지면

그 뒤의 계백 역시 어깨와 복부에 화살을 맞고 칼과 무릎으로 버티면서 멈추는... 시선.

나머지 백제군들도 나뒹굴어 쓰러져 신음하며, “자앙 구운~” 하다가 숨을 거둔다.

쓰러진 팔매의 눈을 쳐다보며

계백

전~군... 공격! 공격하라....

유신, 천존에게 눈짓을 한다.

천존, 앞으로 나서 계백의 목에 칼을 겨눈다.

유신, 흠순, 품일, 법민 등이 보는 앞에서...

이때 어디선가 “장~군!!!” 하고 처절하게 부르는 소리.

멀리 산등성이까지 달아난 거시기가 연신 장군을 애타게 부르고 있다.

김유신

(화살을 맞아 무릎을 꿇은 채 칼로 버티고 있는 계백에게)

장 받게, 계백이.

다시 한번 멀리서 들려오는 거시기의 처절한 외침, “장~군!!!”

천존, 칼을 치켜들어 계백의 목을 겨눈다.

흔들리는 계백의 얼굴......

눈빛......

58.계백의 집-밤(14씬 연결, 회상)

계백

그거 마시고 죽을겨, 내 칼에 죽을겨?

(벙찐 가족들의 마른하늘의 날벼락이란 표정)

이 전쟁이 끝나면 어차피 너희들은...

살아서 치욕을 당하느니 명예롭게 죽어라.

계백처

뭐시라고라, 시방 이녁이 그런 말 헐 자격이 있당가요?!

그러면 우덜이 아이고 서방님, 아이고 아부지,

이 사약 먹고 디질다 그랄줄 아셨소?

에끼, 이 냥반!

계백

(칼을 치켜들며)

이 예편네가!

계백처

시방, 내 생떼거튼 새끼들헌테 자진해서 디지라고라.

씨만 뿌려놓고 전쟁터만 싸돌아댕긴 인간이

이제 와서 뭐시라고라!

방밖 마당에 구부정히 석상처럼 서있는 팔매.

계백

이 예펜네가 환장을...

계백처

그려 환장했다 왜?

내가 결혼해서 이날 이때까지 악밖에 안남은 년이여!

옘병하고... 이 인간이 니가 해준 게 뭐있다고...

계백

이 여편네가 미쳤나?!

계백처

전쟁을 하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그거시 뭐인데 니가 내 새끼들을 죽여!

(계백 칼을 치켜들고 죽이려 하자, 계백 아들딸들 계백처 뒤로 숨는다)

계백처

니 애비 에미가 살아 있으면, 니 애비 에미도 이렇게 죽일껴?

그 말에 계백 주춤하고,

계백

호랭이는 죽어서 꺼죽을 냄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냄긴다고 혔다.

계백처

뭐시 어쩌고 어쪄?!

아가리는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혔어.

호랭이는 가죽 땜세 디지고

사람은 이름 땜세 디지는거여, 이 인간아!

악다구니를 쓰는 마누라와 아이들을 향해 칼을 치켜드는 계백.

석상처럼 서 있는 문밖의 팔매, 문밖에서 보는 그림자들,

방문을 가로막고 서있는 계백,

마침내 칼을 내리치는 계백의 모습이 방문 밖 창호지에 비친다.

59.백제군 식량창고 앞-석양

계백의 얼굴, 눈빛... 눈빛...

"장이야!"를 외치며 계백의 목을 내리치는 천존의 칼.

떨어진 목...

60.사비궁 어전 - 밤

어전에 혼자서 황망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의자왕의 얼굴 위로...

부여효(off-sound)

아부지, 우리 백제는 이만허믄 훌륭했어라.

700년을 해묵었으면 망할 때가 된거시제

아부지가 무능해서 망한게 아니여라.

부여태(off-sound)

아부지, 죽어야 한당께.

지금 자결 해불면 역사의 동정이라도 받을 수 있당께라!!

의자왕(off-sound)

니들이 죽지 그러냐?

부여태/부여융/부여효(off-sound)

우덜이 죽으면 약발이 안먹혀라

부여융(off-sound)

아부지, 이건 자식이 아니라,

백제의 백성으로서 애원하는거시여라.

부여태/부여융/부여효(off-sound)

죽으란께요, 시방 이 자리에서, 자결해부랑께!!....

왕자들의 목소리에 칙서 낭독소리(중국말) 겹치고 이어서 동시통역되는 김인문의 목소리 점점 커지며 중국말 잦아든다.

김인문(off-sound)

당황제는 백제정벌에 따른 전후처리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명하노라.

백제의 의자왕과 왕족들,대신,장수,기술자 등

1만 3천여명을 당제국의 수도 장안으로 호송하고... -O.L-

61.사비궁 야외(나당 연합군 전승 축하연장)-낮

황제 칙서를 들고 읽고 있는 소정방.

동시통역 중인 김인문.

김인문

(소정방의 중국말 위로)

백제 영토는 웅진, 마한, 동명, 금련, 덕안

이상 5개 도독부를 두어 당에 귀속되며

웅진도독은 당제국 좌위왕랑 왕문도를 임명하여 통치케한다.

칙서를 듣는 김춘추는 완전히 똥씹은 표정.

김유신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다.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듯이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칼자루를 쥐락펴락하는 김법민.

소정방 낭독을 끝내고 칙서를 내려 놓으며 거만한 자세로

소정방(중국어-자막)

김춘추, 작전 날짜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군기 빠진 대장군과

병사들을 데리고 내년에 고구려 칠 수 있겠어?

김춘추, 곤혹스런 표정으로 소정방의 말을 듣다가 김유신 쪽으로 고개를 획돌려

김춘추

죽쒀서 개줬구마.

소정방(중국어-자막)

본관은 연합군 사령관으로서

연합작전명령을 이행치 못한 책임자의 목을 치겠다.

김유신, 어금니를 질끈 물고 서서히 일어나더니 소정방 쪽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간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김유신에게 집중된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소정방.

김유신, 묘한 눈초리로 그 많은 사람들 중 김법민을 쳐다본다.

김춘추, 역시 묘한 눈초리로 김법민을 쳐다본다.

김유신, 소정방 앞에서 칼을 휘익- 뽑아 소정방의 코앞에 댄다.

사색이 되는 소정방.

당나라 장수들과 병사들 일제히 칼과 창을 뽑아 들면 부들부들 떠는 소정방.

칼을 허공으로 획 돌려 소정방의 목을 베는 듯 하더니 탁자에 쿵! 하고 내리 꽂는 김유신.

김유신

소정방 이 새끼, 그 칼로 내 목을 쳐라!

이때, 김흠순, 김품일이 나설려고 하자 천존이 가로 막고 나서며 김유신 앞에 무릎을 꿇으며

천존

대장군, 작전명령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군기장교인 제게 있습니데이, 그 칼로 내 목을 쳐 주이소!

이때 이들을 밀치고 등장하는 김법민,

자신의 칼을 뽑아 소정방에게 돌려 내밀며

김법민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소정방, 그 칼로 내 목을 치그라!

(이를 갈며 혼잣말로) 지금 내 목을 못치면,

내 이 땅에서... 당나라 개새끼들을 싹 쓸어버릴거구마!

단결되어 있는 신라군의 기에 눌려 어쩔 줄 모르다 화가 난 듯 일어나 나가버리는 소정방.

흐뭇해하는 김유신 얼굴. 그제서야 맘을 놓는 김춘추.

한결 성숙해진 김법민의 위용.

디졸브...

62.농촌(국경) - 낮

바람에 출렁이는 벼이삭... F.I

카메라 붐업하면 멀리서 달려오는 거시기.

거시기

엄니~ 엄니~

거시기 엄마, 허리를 펴고 바라보니 멀리서 거시기가 논길을 달려오고 있다.

거시기 엄마(50대/여)

워메? 거시기 아녀?

거시기, 쏜살같이 달려와 엄마를 부둥켜 앉는다.

거시기

엄니, 저 왔어라!

거시기 엄마

아이고, 우리 거시기 왔어라

거시기가 왔어라.

거시기와 엄마, 부둥켜 앉고 논바닥에 뒹군다.

기쁨에 겨워 환하게 웃는 거시기 얼굴에서...

여어루 상사아 디이이야 상사아 뒤이이여~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네 말 좀 들어어보소~~

농부가가 록비트로 바뀌면서 자막 올라간다.

-끝-